한국문학탐방3

발표자료집

2020년도 6월29일-7월1일

경상남도 일대
[진주/사천/고성/통영/거제/김해]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목차

Ⅰ.기본 사항

1.탐방단 구성 ····· i
2.준비물 및 주의사항 ····· ii
3.버스 자리표 ····· iii
4.숙소 방배정 표 ····· iv
5.일정표 ····· v
6.탐방지도 ····· vi
7.탐방지 정보록 ····· vii
8.일일 보고서 ····· viii
9.발표 주제 ····· ix

Ⅱ. 발표 자료

1. 변영로
1.1 [구민영] 시인과 영문학자의 삶 ····· 1
1.2 [강은비] 오지 않을 것에 대한 기다림 ····· 2
1.3 [송희제] 논개의 충절에 대한 추모와 예찬 ····· 4
1.4 [임소윤] 변영로의 「논개」와 촉석루 ····· 6
1.5 [송현준] 번영로 작가의 논개와 봄비 ····· 7

2. 박재삼
2.1 [이상훈] 일상과 자연을 노래한 시인 ····· 9
2.2 [홍승희] 춘향이의 그리움이 담긴 <수정가> ····· 10
2.3 [정원태] 바다, 가난과 한 그리고 어머니 ····· 12
2.4 [김승현] ‘한’으로 시를 표현한 박재삼 ····· 14
2.5 [민초이] 서정적으로 녹여낸 박재삼의 작품들 ····· 16

3. 오광대놀이

3.1 [김규찬] 오광대, 조상의 흥을 찾아 ····· 17

3.2 [박유진] 오광대 놀이의 정의 ····· 18

3.3 [전해원] 멋과 얼이 담긴 고성 오광대 탈 ····· 19

3.4 [임정환] 경남의 대표 탈놀음, 오광대 놀이 ····· 22

3.5 [이정수] 가면 속에서 세상을 노래하다. ····· 23

4. 김춘수

4.1 [양우혁] 인식의 시인 김춘수의 삶 ····· 25

4.2 [길주영] 김춘수 '의미'에서 '무의미'로의 변화 ····· 27

4.3 [김래경] 존재론적 의미를 가진 시, 김춘수의「꽃」 ····· 29

4.4 [김서연] 김춘수의 문학적 자전기록으로서의『처용단장』 ····· 31

4.5 [이성규] 김춘수가 시사하는 시대의 아픔과 그의 언어 ····· 33

5. 유치환

5.1 [이혜미] 유치환의 걸음을 따라 ····· 35

5.2 [오승원] 유치환의 생명을 향한 의지 ····· 36

5.3 [김수인] 유치환의 사랑을 담은 시 ····· 38

5.4 [장연승] 이상과 현실 사이의 유치환 ····· 40

5.5 [전은영] 생명을 노래한 청마 유치환 ····· 41

6. 최인훈

6.1 [이정빈] 시대와 대결한 작가 ····· 42

6.2 [김태호] 밀실과 광장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던 이상주의자의 이야기 ····· 43

6.3 [김주리] 1960-1970년대를 살아간 지식인의 삶 ····· 44

6.4 [박정훈] 문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46

6.5 [유현승] 중립국 선택까지 수용소 상황 ····· 47

7. 구지가

7.1 [이윤희]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 50

7.2 [최동희] 우리 시가의 첫걸음, 고대가요 ····· 52

7.3 [신영재] 여러 관점에서 구지가 바라보기 ····· 53

7.4 [윤서현] 구지가의 다양한 해석 ····· 54

Ⅰ-기본 사항

탐방단 구성

담당교수 : 신서인 교수님
인솔교수 : 김명준, 박슬기, 이승은 교수님

학생회장 : 송희제 (010-5920-0854)
부학생회장 : 민초이 (010-8839-9954)
답사부장 : 유수호 (010-5528-5281)
조교 : 이정민 (010-6732-7739)

조 번호	조장	조원
1	송희제	임소윤 송현준 강은비 구민영
2	민초이	김승현 이상훈 홍승희 정원태
3	이정수	김규찬 박유진 전해원 임정환
4	이성규	김서연 김래경 길주영 양우혁
5	전은영	이혜미 장연승 김수인 오승원
6	박정훈	김주리 김태호 유현승 이정빈
7	최동희	이윤희 윤서현 신영재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준비물

답사 자료집, 필기도구, 신분증, 편한 옷과 신발, 세면도구, 개인 약, 우산 등

◆ 주의사항

1. 탐방 중 주의사항
   (1) 인솔자(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답사부장, 조교, 교수)의 지시를 따른다.
   (2) 학교 및 학과의 일원으로서 명예롭게 행동한다.
   (3) 정해진 일정 시간을 엄수한다.
   (4) 명찰을 항상 패용한다.
   (5) 발표시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발표한다.
   (6)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한다.
   (7) 자유 관람 시에도 안전을 위하여 조별로 모여서 이동한다.
   (8)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9) 도로 횡단 시 차량에 유의한다.
   (10)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11) 신체에 이상이 있을 시 인솔자에게 빠르게 알린다.
   (12) 도난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는다.
   (13) 서로가 배려하며 즐겁게 탐방한다.

2. 차량 내 주의사항
   (1)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2) 차량번호를 숙지해둔다.
   (3) 탐방 차량임을 확인하고 탑승한다.
   (4) 승차하기 전 신발을 털어 차내 먼지를 최소화한다.
   (5) 하차 시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모아서 정리한다.
   (6) 하차 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표한다.

3. 숙소 내 주의사항
   (1)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동한다.
   (2)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개인위생에 신경쓴다.
   (3) 일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나친 음주는 피한다.
   (4) 인솔자의 허락 없이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5) 반드시 자신이 배정된 방에서 취침한다.
   (6) 숙소에서 나올 시 자신의 물건을 두고 나오지 않도록 확인한다.
   (5)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둔다.

버스 자리표

<table>
<tr><td colspan="2">기사님</td><td rowspan="10"></td><td colspan="2">계단</td></tr>
<tr><td>전은영</td><td>이정민
(조교)</td><td colspan="2">신서인교수님</td></tr>
<tr><td>임무혁</td><td>유수호
(답사부장)</td><td colspan="2">김명준교수님</td></tr>
<tr><td colspan="2">이승은교수님</td><td colspan="2">박슬기교수님</td></tr>
<tr><td>구민영</td><td>홍승희</td><td>김규찬</td><td>장연승</td></tr>
<tr><td>길주영</td><td>양우혁</td><td>김래경</td><td>이윤희</td></tr>
<tr><td>김수인</td><td>전해원</td><td>김서연</td><td>박유진</td></tr>
<tr><td>오승원</td><td>유현승</td><td>김승현</td><td>이혜미</td></tr>
<tr><td>이정빈</td><td>김태호</td><td>강은비</td><td>윤서현</td></tr>
<tr><td>임정환</td><td>이상훈</td><td>박정훈</td><td>김주리</td></tr>
<tr><td>정원태</td><td>신영재</td><td>송현준</td><td>임소윤</td></tr>
<tr><td>최동희</td><td>이정수</td><td>이성규</td><td>송희제
(학회장)</td><td>민초이
(부학회장)</td></tr>
</table>

숙소 방배정 표

방 번호	방 배정	인원 수	합계
1	송희제(방장) 장연승 임정환 양우혁 이정빈 송현준	6	총 17
2 (간담회실)	최동희(방장) 임무혁 유수호 신영재 정원태 오승원	6	
3 (간담회실)	이정수(방장) 이성규 김규찬 김태호 이상훈	5	
4	민초이(방장) 임소윤 김래경 이윤희 홍승희 강은비 윤서현	7	총 19
5 (간담회실)	박정훈(방장) 김주리 김서연 박유진 유현승 구민영	6	
6	전은영(방장) 이혜미 김승현 김수인 길주영 전해원	6	

일정표

지역 : 경상남도 일대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 김해]

<table>
<tr><th>구분</th><th>1일차 6/29(월)</th><th>2일차 6/30(화)</th><th>3일차 7/1(수)</th></tr>
<tr><td>07</td><td>07:40 집합 (학교-대학본부)</td><td>07:30 기상</td><td>07:30 기상</td></tr>
<tr><td>08</td><td rowspan="4">08:00
출발 (학교-대학본부)
및 이동 (4시간 10분)</td><td>08:00 숙소 내 조식</td><td>08:00 숙소 내 조식</td></tr>
<tr><td>09</td><td>09:00 출발 및 이동 (45분)</td><td>09:00 출발 및 이동 (10분)
09:10 거제 포로수용소 도착
⑥조 발표 - 최인훈</td></tr>
<tr><td>10</td><td>10:00 탈 박물관 도착
③조 발표 - 오광대놀이</td><td rowspan="2">10:50 출발 및 이동 (1시간 10분)</td></tr>
<tr><td>11</td><td>11:00 출발 및 이동 (30분)
11:30 통영 오광대 전수관 도착</td></tr>
<tr><td>12</td><td>12:00 출발 및 이동 (10분)</td><td>12:00 중식 (오리명가)
12:50 출발 및 이동 (10분)</td></tr>
<tr><td>13</td><td>13:00 중식 (천수식당)
13:50 출발 및 이동 (10분)</td><td>12:10 중식 (심가네해물짬뽕)
13:00 출발 및 이동 (10분)</td><td>13:00 수로왕비릉 도착
⑦조 발표 - 구지가</td></tr>
<tr><td>14</td><td>14:00 진주성 촉석루 도착
①조 발표 - 변영로</td><td>13:10 김춘수 유품전시관 도착
④조 발표-김춘수
13:50 출발 및 이동 (10분)</td><td rowspan="5">14:00 출발 및 이동 (4시간 10분)</td></tr>
<tr><td>15</td><td>15:00 출발 및 이동 (60분)</td><td>14:00 청마문학관 도착
⑤조 발표 - 유치환
15:00 출발 및 이동 (1시간)</td></tr>
<tr><td>16</td><td>16:00 박재삼문학관 도착
②조 발표 - 박재삼</td><td rowspan="3">16:00 바람의 언덕 도착
유람 (50분) - 이동 (10분)

17:00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도착
유람 (50분) - 이동 (10분)

18:00 석식 (대박난맛집)</td></tr>
<tr><td>17</td><td>17:00 출발 및 이동 (60분)</td></tr>
<tr><td>18</td><td>18:00 석식 (우뚝해장국)</td><td>18:30 도착 (학교-대학본부) 및 해산</td></tr>
<tr><td>19</td><td rowspan="3">19:00 출발 및 이동 (40분)
19:40 숙소 입실 (소노캄거제)
20:00 소감문 작성
20:30 간담회</td><td>19:00 출발 및 이동 (30분)</td><td rowspan="4"></td></tr>
<tr><td>20</td><td rowspan="2">19:30 숙소 입실 및 소감문 작성
20:00 간담회</td></tr>
<tr><td>21</td></tr>
<tr><td>22</td><td>22:00 개인 정비 및 취침</td><td>22:00 개인 정비 및 취침</td></tr>
</table>

탐방지도

1일차
진주성 촉석루
(1조 변영로 발표)
2일차
탈 박물관
(3조 오광대놀이 발표)
1일차
박재삼 문학관
(2조 박재삼 발표)
2일차
김춘수 유품 전시관
(4조 김춘수 발표)
청마 문학관
(5조 유치환 발표)
3일차
수로왕비릉
(7조 구지가 발표)
3일차
포로수용소
(6조 최인훈 발표)
숙소
소노캄 거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원시
천태산
(630.9m)
무학산
(761.4m)

탐방지 정보록

*일정표에 표기된 동선 순서대로

지역명	장소명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진주	[식사] 천수식당	경남 진주시 향교로 8번길 3	055-742-7977
진주	[탐방] 진주성 촉석루	경남 진주시 본성동	055-749-5171
사천	[탐방] 박재삼문학관	경남 사천시 박재삼길 27 박재삼문학관	055-832-4953
통영	[식사] 우뚝해장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30	055-648-6330
거제	[숙소] 소노캄거제	경남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660	1588-4888
고성	[탐방] 탈 박물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2길 23	055-670-2948
통영	[탐방] 통영 오광대 전수관	경남 통영시 정량동 685-1	055-648-4442
통영	[식사] 심가네해물짬뽕	경남 통영시 새터길 74-4	055-649-8215
통영	[탐방] 김춘수 유품전시관	경남 통영시 해평5길 142-16	055-650-2670
통영	[탐방] 청마문학관	경남 통영시 망일1길 82	055-650-2660
거제	[유람] 바람의 언덕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14-47	
거제	[유람]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거제	[식사] 대박난맛집	경남 거제시 동부면 거제대로 910	055-636-0118
거제	[탐방] 거제 포로수용소	경남 거제시 계룡로 61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055-639-0625
김해	[식사] 오리명가	경남 김해시 가락로 35	055-328-9972
김해	[탐방] 수로왕비릉	경남 김해시 구산동	055-330-3948

일일 보고서

조		학번		이름	
일시		2020년 5월 일 (일차)			
탐방 장소		탐방 내용			

【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한 감상】

【발표 내용 및 답사 일정에 관한 의견】

발표 주제

조	주제	지역 및 탐방 장소
1조	변영로 -「논개」,「봄비」	[진주] 진주성 촉석루
2조	박재삼 -「수정가」,「추억에서」	[사천] 박재삼 문학관
3조	오광대놀이	[고성] 탈 박물관
4조	김춘수 -「꽃」,「처용단장」	[통영] 김춘수 유품전시관
5조	유치환 -「생명의 서」,「행복」	[통영] 청마문학관
6조	최인훈 -『광장』	[거제] 포로수용소
7조	구지가	[김해] 수로왕비릉

*참고

조	조장	조원
1조	송희제	임소윤 송현준 강은비 구민영
2조	민초이	김승현 이상훈 홍승희 정원태
3조	이정수	김규찬 박유진 전해원 임정환
4조	이성규	김서연 김래경 길주영 양우혁
5조	전은영	이혜미 장연승 김수인 오승원
6조	박정훈	김주리 김태호 유현승 이정빈
7조	최동희	이윤희 윤서현 신영재

Ⅱ-발표 자료

시인과 영문학자의 삶

-변영로의 생애

인문학부 20201004 구민영

변영로는 1898년 서울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호는 '수주'다. 1913년 중앙기독청년회관에서 운영하는 영어반을 졸업하고 이듬해 1914년 영시(英詩) <코스모스>를 발표했다. 이때는 문예지 기고를 통해 등단한 것이 아니었으나, 당대에 천재시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3.1운동이 시작된 1919년에는 YMCA에서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해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발송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인 생활을 시작했다.

1920년 문예지 《폐허》, 1921년 《신천지(新天地)》에 평문과 논문, 시를 발표했다. 이후 1922년에는 그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논개>를 발표했다. <코스모스>를 발표했을 때 들었던 찬사와 별개로 그는 작품을 많이 발표한 문인은 아니었다. 한 해에 5~6편 가량,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를 선보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가락이 부드럽고 말씨가 서정적이어서 적은 작품으로도 시단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어 작품 안에는 민족혼을 일깨우려는 노력도 담겨있었다.

그의 시세계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시집 <조선의 마음>이 발간되기까지인데, 민족시인의 의식이 표출된 시기이다. 이때의 대표작이 바로 <논개>이다. 2기는 <논개> 발표 후부터 광복까지의 시기다. 2기의 시들은 시인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인식함에서 오는 절망감 안에서도 선비적 절개와 지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실제(失題)>, <사벽송(四壁頌)> 등을 2기의 대표작으로 본다. 3기부터는 광복부터 사망까지의 시기로 <돐은 되었건만>과 같은 민족의 앞날,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적인 시를 주로 썼다.

문예 활동 외에도 그는 우리나라의 시사(詩史)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성균관대 영문과 교수, 해군사관학교 영어교관 등의 경험을 살려 우리 문단에 영미문학(英美文學)을 소개했고, 우리 작품을 영역해 세계에 알렸다. 또한 남궁 벽(南宮璧)의 유고 일문시(日文詩)를 《신생활》에 소개하여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 공을 인정받아 1948년 서울시문화상(문학부문)을 수상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변영로', 2020.05.11 https://han.gl/FBMzh.

오지 않을 것에 대한 기다림

-변영로의『봄비』작품 설명

인문학부 20201002 강은비

봄비

변영로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졸음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만이

무척이나 가쁜 듯이, 한없이 게으르게

푸른 하늘 위를 거닌다.

아,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아려~ㅁ풋이 나는, 지난날의 회상(回想)같이

떨리는, 뵈지 않는 꽃의 입김만이

그의 향기로운 자랑 안에 자지러지노나!

아, 찔림 없이 아픈 나의 가슴 !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보니

이제는 젖빛 구름도 꽃의 입김도 자취 없고

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봄비만이

소리도 없이 근심같이 나리노나!

아,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1)]

1) 구자룡,『변영로 연구1』산과들 , 2011, pp.207~208.

변영로의 『봄비』라는 시는 서정시로 봄날의 현상을 인지하고 형상화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봄비라는 제재를 통해 오지 않을 사람을 그리워하는 애타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시이다. 먼저 이 시의 구성은 총 3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연은 낭만적인 분위기 속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2연은 꽃향기 속에 찔림 없는 아픔을, 3연은 봄비 속에서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시인은 봄비를 '졸음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 '떨리는, 뵈지 않는 꽃의 입김',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것에 묘사를 했다. 봄비와 이러한 부드럽고 약한 것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봄비와 부드럽고 약한 것들이 서로 연관되는 것임을 암시한다. 시인이 이런 가냘픈 존재를 인식하는 건 자신의 심정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시인은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존재는 부재하기 때문에 시인의 마음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대상이다. 각 연의 1,2행에서는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보니'를 반복하여 봄비의 부름과 그 존재에 대한 시인의 정서를 한 문맥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반복구로 시의 리듬을 살리는 효과를 준다. 또한 '노라!', '누나!' 등의 영탄조의 어미 사용은 이 시를 더 낭만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데 기여한다. 각 연의 마지막 행인 '아,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아, 찔림없이 아픈 나의 가슴!', '아,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각각 봄비 내리는 모습을 보고 느낀 시적 자아의 마음을 '서운하고', '아프고',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봄비가 묘사 대상이 되었지만, 작품의 주제는 시인의 상실감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쓰인 시대를 보면 1923년, 일제강점기 시대이다. 이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화자가 기다리는 것의 존재는 조국의 광복이 아닐까. 또한 마지막 행인 '아,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에서 왜 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 화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조국의 광복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답답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1920년 대 3.1운동이 실패한 직후 우리 민족이 느낀 좌절감과 암담한 심정을 반영한 한국 서정시의 정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구자룡, 『변영로 연구1』, 산과들, 2011.

논개의 충절에 대한 추모와 예찬

-변영로의 대표작『논개』소개

국어국문학과 20171053 송희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情熱(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땁던 그 娥眉(아미)
높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2)]

<논개>는 변영로가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의기(義妓)로 알려진 기생 논개에 대해 쓴 시이다. 논개는 임진왜란에서 자신이 직접 촉성루에서 일본장수를 안고 남강으로 투신하여 같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작품은 총 3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 인물인 논개의 충절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대의 현실 즉,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제에 대하여 민족적 정기를 노래하고자 한 작품으로, 논개를 추모하고 예찬하는 찬가형식으로 논개의 충절을 형상화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노'는 결코 '종교'보다 깊은 것일수는 없지만 임진왜란과 식민지 시기라는 당시 상황의 맥락으로 볼 때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거룩한 것이 되며 정열은 이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것이기에 사랑보다도 강하다. 결단의 순간 흔들렸던 논개의 '아미'는 '높게'를 통해 개인의 아름다움의 심상에서 민족정신의 미적 심상으로 고양된다.

---

2) 변영로,『논개』, 토지, 2018, p.10.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정신을 ‘석류 속 같은 입술’, ‘입맞춤’을 통해 논개의 ‘죽음’조차도 아름답고 숭고한 것으로 승화시켰다.[3] 반복되는 후렴인 ‘아, 강낭콩꽃보다도’와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을 통하여 논개라는 인물의 존재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석류’, ‘석류 속 같은 입술’, ‘양귀비꽃’ 등을 통하여 젊은 여성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논개의 충절에 대한 예찬으로 보인다.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를 통해서 영원한 논개의 조국애를 표현하였다. 즉 1연에서는 논개의 분노를 2연에서는 논개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3연에서는 논개의 죽음 이후의 남강의 푸른 물결을 묘사했다.

‘논개’가 쓰인 당시 상황은 1923년 무렵으로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지속되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변영로는 임진왜란 당시 논개의 당당한 모습과 충절에 대한 예찬을 통해서 민족적 정기를 환기시켜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한 작품이다.

《참고문헌》

김학동. 「논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논개&ridx=1&tot=11
2020.05.17.
오세인. 「변영로 시에 나타난 ‘거리(街)’와 ‘길’의 표상 대비 연구」. 한국시학연구39, 한국시학회 2014, pp.203~227.
오세인. 「변영로 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3, 2013, pp.9~40.

3)오세인. 「변영로 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3, 2013. pp 16~19.

변영로의 「논개」와 촉석루

-논개와 촉석루의 역사적 관련성

국어국문학과 20181089 임소윤

“진주성 촉석루는 한국전쟁으로 불타기 전에는 국보로 지정되었던 문화재이다. 남강의 바위가 솟아 있는 모양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도 하며, 촉석산에서 돌을 캐다 누각을 지었으므로 촉석루라 하였다고도 한다.”[4] 남원 광한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5] 중 하나로 남강과 의암, 진주성과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하며 진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힌다. 전쟁 시에는 지휘본부로, 평상시에는 향시(鄕試)를 치르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국보 276호였으나 전쟁 중 화재로 인해 파괴되어 복원하였다. 현재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8호이며, 정면 5칸, 측면 4칸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임진왜란의 적전지인 진주성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불리는 진주성대첩의 1차 전투에서의 승리로 왜군을 막아낸 곳이다. 진주성의 촉석루는 고려 공민왕 14년(1365)에 세워져 일곱 번의 중수를 거쳤으며, 전쟁 시에는 지휘본부이자 남쪽 지휘대로 사용되었다 하여 남장대(南將臺)라고도 하였다. 촉석루의 또 다른 별칭은 장원루(壯元樓)이다. 이름에서 그 쓰임새를 짐작할 수 있듯이 평화로운 때에는 과거를 치르는 시험장으로 쓰였다. 현재 건물은 한국전쟁 때 완전히 파괴된 것을 1959년 원형대로 복원한 것이다.

변영로의 작품 「논개」는 왜장과 함께 남강에 뛰어든 논개의 애국적 절개와 충절을 예찬하는 시이며 진주성 문 앞에 시비로써 세워져 있다. 이때 논개가 뛰어든 곳이 바로 진주성 촉석루의 바위이다. 논개의 순절 이후, 기생으로 알려진 논개를 의로운 기생이라 하여 의기(義妓), 논개가 뛰어든 바위를 의암(義岩)이라 칭하게 되었다. 의암(義岩)은 촉석루 바로 아래 남강가에 작은 섬처럼 떠 있는 바위로 본래는 위암이라 불렸으나 논개의 충절을 기려 의암이라 부르게 되었다.[6] 논개에 대한 기록은 조선 광해군 때인 1621년 유몽인(柳夢寅)이 저술한《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진주의 관기이며 나라를 위해 왜장의 허리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간단한 기록이 최초이며 그 후로 44편의 기록설화와 구전설화로 남아 전해진다.[7] 대표적인 논개 설화는 금가락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진주에서 금가락지는 논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논개가 왜장을 안고 투신할 때 손이 풀어지지 않도록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가락지는 남강을 가로지르는 진주교 교각 상부에 논개 충절의 상징물로서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이처럼 논개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적고, 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국가적 보상 또한 시기적으로 늦게 이루어졌다. 촉석루 바로 옆에 있는 의기사는 논개의 사당으로 영조 16년(1739)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안에는 논개의 초상화 한 점이 모셔져 있다.[8]

《참고문헌》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pp.169~21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지리산자락-답사여행의 길잡이6』, 돌베개, 1996.

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지리산자락~답사여행의 길잡이6』, 돌베개, 1996. pp.252~255.
5) 사방이 탁 트이게 높이 지은 다락집.
6) 앞의 책, pp.252~255.
7)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pp.174~179.
8)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6), 『지리산자락-답사여행의 길잡이6』, 돌베개, 1996. pp.252~255.

번영로 작가의 논개와 봄비

-논개와 봄비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87006 송현준

1920년대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민족의 자각과 자율 정신을 일깨웠으며 문학사적인 면에서 현대에 접근하는 문예 창작의욕에 자극을 주었다. 단편적으로 시인들은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시로 표현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9)]

변영로의 작품 <논개>는 논개의 순국을 추모하며 그녀의 거룩한 희생을 노래하는 시이다. 그러나 이 시가 창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미루어 볼 때 이 시는 단순히 논개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만으로 평가해선 안된다.[10)]

<논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의 문단에서 "민족 저항 의식의 서정시적인 승화, 시 기교의 일단의 전진을 가져오는데 공헌하고 있다. 이는 일제 말기의 처절한 상황에서 "고고한 민족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서 그의 시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11)] 또한 <논개>에서 변영로는 '조선마음'이란 관념을 '논개'라는 역사적 매개에 의해 시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 시사에서 "'조선마음'이란 관념을 '논개'같은 역사적 인물에 투영하여 높은 수준에서 시적으로 승화시킨 방식이 1920년대 초반에 변영로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사실"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12)]

앞에서 <논개>가 '조선마음'이란 관념을 '논개'라는 역사적 매개에 의해 시적으로 승화 시켰다면, <봄비>에서는 '구체적인' 한국의 풍경(감각)에 의해 시적으로 승화시켰다고 말한다. 변영로에게 '봄비'는 단지 서정이나 풍경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조선마음'이라는 관념인 것이다.[13)] 민족주의적 성격을 띄는 '조선마음'을 '봄비'라는 풍경에 비유하는 특별한 방식은 이러한 형태를 가진 관념시의 전통이 흔하지 않은 우리 시사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진다.

<봄비>는 수주가 "그의 강렬한 민족의식을 단지 거센 목소리로 외치기만 했던 것이 아닌 그것을 갈고 다듬은 시어와 시형이라는 적절한 그릇 속에 담아 전할 수 있는 기량있는 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라고 평가한다.[14)] 김용직은 <봄비>를 예로 들어 "변영로의 작품은 정형율 보다 자유시의 측면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작품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어귀의 반복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그 형태, 구조 역시 운율 쪽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그가 민요조 서정시의 단면을 지닌 바 있음을 뜻하는 것"[15)] 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

9) 이선희,「樹州 卞榮魯 硏究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p.8~10.
10) 이화영,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55.
11) 박두진,『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1, p.64.
12) 김영민,『차라리 달 없는 밤이드면』, 정음사, 1983, pp.196~202.
13) 구자룡,『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pp.114.
14) 위의 책 p.130.
15) 김용직,『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pp.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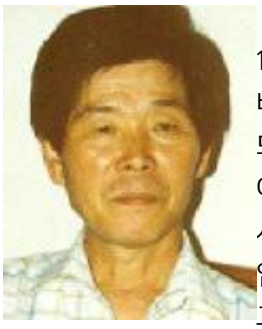
《참고문헌》

구자룡, 『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김영민, 『차라리 달 없는 밤이드면』, 정음사, 1983.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1.
이선희, 「樹州 卞榮魯 硏究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이화영,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일상과 자연을 노래한 시인

-시인 박재삼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91069 이상훈



박재삼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4월 10일, 도쿄에서 출생했다. 3년 뒤인 1936년에는 가족 모두 귀국해 어머니의 고향인 삼천포에 정착하였다. 꽃비늘이 반짝이는 삼천포 앞바다에서의 유년기는 그의 시적 상상력의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가난한 생활은 삼천포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 탓에 박재삼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삼천포 여자중학교에서 사환, 즉 심부름꾼으로 일하다가 삼천포 중학교 병설 야간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 박재삼은 당시 교사로 있던 초당 김상옥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감화를 받아 시를 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박재삼은 김상옥의 첫 시조집인 '초적'을 공책에 적어 애송했으며 교내 신문 창간호에 동요 '강아지'와 시조 '해인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박재삼은 1953년 11월 시조 '강물에서'를 문예지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들어섰고 은사 김상옥 선생의 소개로 현대문학사에 취직했다. 당시 시조 '섭리'와 시 '정적'을 서정주의 추천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때 즈음 박재삼은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였으나 3년 뒤에 자퇴하였다. 그 뒤로 현대문학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대한일보의 기자, 삼성 출판사의 편집부장 등을 지내며 소박한 일상생활과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썼다.

박재삼은 생전 고혈압, 뇌졸중, 위궤양 등 병마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 앓던 지병으로 인해 1997년에 생을 마감하였다.[16)]

박재삼은 40년이 넘는 시작 활동에서 15권의 시집과 13권의 시선집을 남겼다. 현대 문학 신인상, 한국 문학 작가상, 중앙 시조 대상, 은관 문화훈장 등의 수많은 수상 기록을 보면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한 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재삼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의 시단은 외래어의 남용, 관념성 등이 난무하며 '텅 빈 비극의 시대'라고 명명되고는 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정서를 아름답게 다듬은 언어 속에 담고
전통적 서정성을 계승한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정영현, 「박재삼 시의 전개과정과 작품세계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6) 정영현, 「박재삼 시의 전개과정과 작품세계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6~8.

춘향이의 그리움이 담긴 <수정가>

-박재삼 <수정가> 해설

인문학부 20201115 홍승희

<수정가>는 박재삼의 시집 『춘향이 마음』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이다. 춘향전을 모티프로 창작된 시지만 설화 속 춘향을 재생하기보다 춘향을 한 인간의 대표 유형으로 보편화하고 그의 슬픔도 '우리'라는 공동체의 보편적 정서로 확대하였다. 설화적 이야기 구조와 다른 인물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여 춘향의 기다림이라는 과정에 집중하게 한다.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17]

<수정가> 전문

1연의 심상은 '서방님~바람', '춘향이~물방울'로 대응시킬 수 있다. 첫 부분 '집을 치면'은 '우물집이었을레'와 호응하여 '춘향이 마음'을 만약 집으로 친다면 '~ㄴ집이었을 것이다'는 가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춘향이 서방님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공간은 보호와 휴식의 공간이자 포근한 안식을 주는 어머니의 공간으로 춘향의 마음이 곧 모성을 품은 곳으로 서방님이 돌아와야 할 안식의 공간이다. '우물집'으로 비유되는 춘향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리움의 마음' 은 '아침마다 신선한 물방울을 새로 펴 울리는 우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우물은 순수의 세계이고 불변의 미덕을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다 놓고 '바람'으로 인식되는 이 도령과의 만남을 빌고 비는 춘향의 임을 향한 맹목적 기다림은 다시 숙명적 그리움으로 이어진다. '한'이라는 전통 정서를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춘향의 마음을 묘사하는 집의 풍경을 '정화수 잔잔한 위에' 와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의 평상의 갈앉은 뜨락의'처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정갈한 집은 정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마음의 진실성과 간절함을 암시한다. '춘향의 마음'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집'에 비유하여 구체화 시키고 있다.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 '물 냄새 창창한 집'으로 비유했다. 이는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집을 집임을 암시한다. 춘향을 순수와 염원의 세계인 서사적인 인물에서 모성 희귀의 의미를 지닌 서정적 인물로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이 도령은 '바람'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나뭇잎을 흔들어 놓고 물결을 일렁이게 하며 춘향은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이라며 어련히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도령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18]

---

17) 남궁선, 「박재삼 시 연구: 박재삼 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과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8, 2017, p.193.

18) 최은주,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어문학 교육방안 연구: 박재삼의 연작시 '춘향이 마음'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28~30.

‘신선한’은 촉각적 이미지, ‘물냄새 창창한’은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눈물의 감촉과 냄새를 나타낸다. 2연 에서는 인간의 삶이 ‘일렁이’ 고 ‘눈물’ 나는 것은 삶이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는 역설의 진리가 ‘바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다. ‘푸른 그리움’ 은 ‘그리움’을 푸르다는 색깔로 시각화했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는 춘향이 돌아오지 않는 임이 그리워 눈물짓는 설움을 ‘흐느낌’ 이라는 청각과 ‘물살짓는’ 의 시각적 이미지로 결합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춘향의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은 직설적이지 않고 시적 긴장과 세련미를 드러낸다. ‘산신령은 현실 도피의 의미가 아닌 춘향이 이 도령과의 이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작용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기다림의 고통을 끊어줄 ‘산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만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맑은 빛깔의 수정 빛 임자’이기에 맹목적 기다림은 숙명적 그리움으로 이어진다. 밝음의 극복 이미지는 한국적 ‘한’의 정서로 춘향의 울음을 서방님과의 만남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산과 산 사이를 물살처럼 부는 바람은 서방님이기에 ‘바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산에서 서방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다.

산문체 문장으로 구성된 시로 춘향은 ‘물방울, 수정, 물살 짓는 어깨, 만리 같은 물살’로 비유하고 있다. 이때의 눈물은 기다림과 고통 속에서 슬픔으로 춘향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의지의 표상이다.

물은 ‘눈물’과 연관되어 슬픔, 고통 시련을 상징하며 시적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시에서는 춘향과 이몽룡의 이별을 소재로 춘향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형태가 없는 아련함이라는 속성을 가진 ‘마음’과 ‘눈물’의 결합이 물의 속성을 가진 다양한 술어들로 인해 ‘물’의 이미지로 확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침마다 생기는 물방울’은 매일 아침 흘리는 눈물이다. ‘물방울’과 ‘물의 이미지’, ‘수정 빛 임자’는 슬픔을 이겨내는 순수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아름다움으로 느껴진다. ‘수정’은 빛을 물의 이미지로 햇빛 이미지에서 물 이미지로 이어지게 한다. 우물집에서 서방님을 기다리던 춘향이 정화수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감정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산마루를 오르고 내리는 모습에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이 집안의 부뚜막에서 우물집으로 집에만 머물던 1연과 달리 2연은 ‘푸른 산’으로 공간의 확대와 함께 ‘산신령’이 연이어 등장해 수직 상승 이미지를 가져온다. 춘향이 푸른 산 언덕을 바라보며 ‘바람’ 같은 서방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루에 몇 번 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는 춘향의 기다림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연은 집안, 2연은 푸른 산의 공간적 이미지는 춘향의 심리적 변화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서방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진다. 일인칭 시점의 시적 화자는 춘향으로 볼 수도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제 3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적 상황을 살펴보면 시적 화자의 목소리와 춘향의 목소리가 중첩되었음을 알 수 있다.[19]

《참고문헌》

남궁선 ,「박재삼 시 연구: 박재삼 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과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18, 2017, pp.177~201.
최은주,「현대시를 활용한 한국어문학 교육방안 연구: 박재삼의 연작시 ‘춘향이 마음’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9) 위의 논문, pp.31~32.

바다, 가난과 한 그리고 어머니

-박재삼『추억에서』해설

인문학부 20201096 정원태

『추억에서』는 크게 바다, 가난과 한, 어머니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박재삼 시인의 시에서는 바다와 강이 많이 등장한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20]

<추억에서> 부분

그 이유는 거의 15년간 삼천포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박재삼 시인의 시 중 <봄바다에서> <밤바다에서> <물먹은 돌밭 경치> <섬> <울음이 타는 강> <남강가에서> 등의 시편이 그렇고, <밑물결 치마> <어지러운 혼> <광명> <가난의 골목에서는> <무제> 등의 시편이 '바다'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추억에서> 등의 시편이 '강'의 이미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박재삼의 제1시집<춘향이 마음에서> 제 1부<춘향이 마음>을 제외한 제2부<남해안>과 제 3부<원한>의 20편의 시 가운데 14편의 시가 바다와 강의 이미지와 관련을 맺고 있다.[21]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22]

<추억에서> 부분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난에 찌든 한의 모습이다. 화자는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통해 '한'을 형상화 시키고 있다. 그런데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도, 무능력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난에 대한 허무주의적 정서가 짙게 깔려 있을 뿐이다. 극도로 궁핍했던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은 가장 현실적인 슬픔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 50년대의 시대적 정황에서는 거의 생활과도 같은 것이었으므로 동시대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인의 개인사에 비추어 볼 때, '가난'은 눈물을 유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재삼의 시 서러움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그의 서러움은 더욱 진한 서러움으로 심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밝고 아름답게 승화된 서러움이다. 그의 시에서는 한이 원한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그의 한은 가난의 경험으로 인한 서러운 한으로 표현되지만 이러한 정서를 극복하거나 아름답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23]

어머니는 유년의 아들에게 귀의처여야 하는 것이고, 아들에게 어머니는 꼭 필요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박재삼의 유년 시절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밤늦게 돌아온다. 따라서 어린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불안정한 대상으로 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서러움으로 심화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내면화된다.

---

20) 박재삼,「<박재삼 시선> 밤바다에서 외 8편」,『문예운동』, 2017, p.35.
21) 김태호,「박재삼의 시세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9~11.
22) 박재삼,「<박재삼 시선> 밤바다에서 외 8편」,『문예운동』, 2017, p.36.
23) 김수호,「박재삼 시 연구- '한' 풀이 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23.

시인은 유년 시절 같이 있어 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삶과 슬픔을 이해함으로써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24]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25]

~『추억에서』 부분

달빛 받은 옹기들과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을 비유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어머니의 눈물과 옹기를 비유한 것이다. 이 부분을 보며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아름다운 달빛 받은 옹기와 비유하며 어머니의 슬픔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시는 어릴 적 가난했던 생활 체험을 회상하며 어머니의 슬프고 한스러운 모습을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에 곁에 없었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의 그리움을 노래한 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수호, 「박재삼 시 연구-'한' 풀이 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1~96.
김태호, 「박재삼의 시세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1~91.
박재삼, 「<박재삼 시선> 밤바다에서 외 8편」, 『문예운동』, 2017, pp.33~40.

24) 위의 논문. pp.32~34.
25) 박재삼(2017), 「<박재삼 시선> 밤바다에서 외 8편」, 『문예운동』, p.36.

‘한’으로 시를 표현한 박재삼

-박재삼의 작품세계

국어국문학과 20191022 김승현

박재삼의 시 세계는 한의 정서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서정시를 계승시켰다. 그의 시세계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 기인하여 한을 나타내고 있다. 박재삼 시인 자신이 가난을 섬세한 시어와 운율로써 그려냈다. 그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이 세계로부터 초월하기보다는 자신의 시 세계로 끌어들였다.[26)]

삼천포에서의 가난은 가난했기에 생각이 많았던 박재삼이 우리는 왜 가난하냐는 물음에서부터 가난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을 지나 삶과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자연을 박재삼은 그의 시에서 고향과 자연과 삶을 가장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왔고 그의 시 세계가 평생 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난의 경험과 인식, 삼천포라는 남해안의 향토 경험과 성장기에서의 다양한 여러 한 것들이 그의 세계 중에 중요한 한을 이루고 있다. 삼천포에서의 삶과 삼천포의 자연에서 싹이 튼 그의 시는 그 싹을 평생 가꾸어 아름다운 시 15권의 시집을 남겼다.[27)]

<추억에서>, <어떤 귀로> 등 많은 시에서 가난으로 인하여 어린 가슴이 짓이겨진 철저한 한이 맺혀져 있다.

어린 시절의 가난 이외에 박재삼의 시에서 슬픔의 정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죽음과 질병이 있다. 그의 시에서 죽음은 자연이라는 무한대의 공간과 연결되면서 재생과 합일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시 <천지무획>에서는 인간적 숙명을 극복 하자고자 하는 시인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시인이 병고를 거치면서 터득하게 된 자연 이법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재삼 시에 나타난 한과 슬픔의 정서는 이렇듯 가난과 질병이라는 일상적 삶의 비극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을 오히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정으로 승화시킨다. 이것이 그의 한의 출구이자 풀기방식이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영원한 것, 그래서 마침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균형을 이루면서 하늘의 이체에 순응하고 삶과 죽음을 동일한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의 시에서 대부분 자연은 완벽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 인간은 자연에 따르고 그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에게 자연은 삶의 이치를 완벽하게 구현하여 영원하고 지순한 아름다움에 도달해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의 시에서는 타자에 대한 투사가 아니라 타자의 한에 오히려 자신이 동화되는 또는 한 자체가 스스로 중화되어 해체되는 객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재삼 시에 있어서 한은 가난, 질병과 같은 삶의 구체적 모습이 바탕을 이룬 삶의 실제적 양식의 한이 그의 작품 세계에서 드러난다.[28)]

---

26)맹문재, 「박재삼의 시에 나타난 가난 인식 고찰」, 『批評文學』48, 한국비평문학회, 2013, pp.147~148.

27)김양희, 「박재삼 초기시의 상상력과 시세계」, 『인문학연구』3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95.

28)차호일, 「소월 시와 박재삼 시 비교 연구-한을 중심으로」, 『批評文學』18, 한국비평문학회, 2004, pp.429~434.

《참고문헌》

김양희, 「박재삼 초기시의 상상력과 시세계」, 『인문학연구』3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73~104.
맹문재, 「박재삼의 시에 나타난 가난 인식 고찰」, 『評文學』48, 한국비평문학회, 2013, pp.147~179.
차호일, 「소월 시와 박재삼 시 비교 연구-한을 중심으로」, 『批評文學』18, 한국비평문학회, 2004, p.413~437.

서정적으로 녹여낸 박재삼의 작품들

-박재삼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81034 민초이

박재삼은 여러 산문과 시 작품을 통해 서정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김소월 이래로 전통적인 서정성의 개념을 시 속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재삼의 산문과 시는 한국 현대 시에서도 서정성이 잘 나타난다. 박재삼의 산문 속에서 서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창작 주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의 시 작품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고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 이미지, 관점의 차원에서 그의 서정성에 기여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 현대 시의 서정성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

정서의 차원에서 박재삼의 작품은 단일한 정서가 아니라 여러 정서가 복합적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정서의 복합성은 여러 요인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 주체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서를 담다 보니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오랜 시간 계승되고 누적되어 온 지속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박재삼의 작품 속에서 그의 시를 읽는 독자에게 다양한 시적 정서를 갖게 하는 데 기여한다. 양성적 어조와 자연물에 빗댄 슬픔의 표현 등이 작품 자체에서 드러나는 슬픔을 미적 정서로 객관화시켜 일종의 낭만적 거리를 획득하게 한다.

전통적인 서정시는 감정의 표백에 치중하기 때문에 운율에 치중하기 쉽지만, 박재삼의 시에는 시편마다 빛나는 이미지가 살아 있으며, 그 이미지와 운율의 유기적인 조화로 시의 의미가 조성된다. 이미지의 차원에서 특히 이중적, 양면적 이미지가 그의 서정성을 배가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29]

관점의 차원에서 자연과 인간을 결합을 통한 이중적 세계관으로 박재삼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원리를 깨닫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 특히 자연에 자신의 감정을 많이 이입시키고 동일시하여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처럼 박재삼은 이중적이며, 다층적인 정서와 이미지, 관점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자연이 주는 깨달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박재삼의 이러한 시 작업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국어의 아름다운 울림과 어린 시절 고향에서 내면화되어 온 정서와 관습, 자연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 등을 텍스트 속에 담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박재삼 시인의 작품은 서정성을 다양한 시적 스펙트럼으로 녹여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30]

《참고문헌》

유영희, 「박재삼의 시 의식과 서정성」, 『우리말글』 77, 2018, pp.299~330.

29) 연약한 인간의 삶과 관련된 생의 이미지도 박재삼에게는 '약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면'을 지니게 된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박재삼은 그러한 이미지 자체가 특유의 미의식을 낳게 된다고 보고 끊임없이 그의 시 속에서 재생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0) 유영희, 「박재삼의 시 의식과 서정성」, 『우리말글』 77, 2018, pp.299~331.

오광대, 조상의 흥을 찾아

-오광대 어원과 유래

국어국문학과 20191008 김규찬

오광대라는 것은 경상남도지역을 중심으로 전승해 오는 민속 가면극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광대는 수영, 동래, 부산진, 동쪽 등에서는 들놀음을 뜻하는 야유(野遊)라 부르고 나머지 지역은 오광대라고 불린다. 이 극은 처음 초계 밤마리[31]에서 시작됐다. 좌수영, 동래, 부산, 마산, 통영의 오광대 및 야유 등이 모두 초계에서 처음 시작된 기원으로 삼고 있다. 좌수영은 60년 전 초계에 가서 있던 동래 수영사람이 보고 와서 처음 만든 것이고 동래읍은 수영의 것을 전수 받아 60년 전에 시작한 것이다.[32] 부산에서는 약 40년 전 동래나 수영 생김새를 모방하여 시작하였다고 하고, 김해의 오광대는 약 40년 전 동래의 것을 참고로 하여 시작하였다.[33] 마산은 약 40년전 초계 광대에 의하여 습득한 것이라고 하며, 통영은 약 30년 전에 마산의 만든 것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한다.[34] 오광대는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35]이 폐지되자 연희하던 광대들이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공연하여 전파된 산대도감의 초기 분파로 보기도 한다. 오광대 중 고성 오광대의 역사를 보면 중종 25년인 1530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기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탈놀이라고 볼 수 있다.

오광대의 이름의 오를 그릇될 오(誤) 글자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섯 오(五)가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릇될 오(誤) 이름의 유래는 이 가면극 전체에 나타나는 특수계급 즉, 양반을 여지없이 모욕하는 데 있다. 당시 양반의 세력이 왕성할 때여서 제목을 일부로 오광대라고 하였다. 광대 자기들끼리 욕설함을 장난삼아 하는 것임을 보여 일의 중요성을 막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 말하자면 속담에 '눈을 감고 아웅 한다'라는 격으로 양반을 광대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오(五)인 이유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인데 다섯이라는 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역마다 의미는 가면의 개수가 5개여서, 오행설[36]에 연유한 것이어서, 다섯 마당으로 놀아서 등이 존재한다. 오광대의 의미 중 가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행설이다. 오행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에 있어 뗄라 뗄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한다. 출가, 치장, 이사, 상량, 개시 등 하나도 빠지는 곳이 없이 들어가는 것이다. 진주극 제 1과장(염불 타령 반주) 또는 마산 극 제3과장 처음에 오신이 출현하여 오방신장무가 추어지고 오행과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관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오행설이 가장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송석하, 『오광대 기원과 유래』, 온이퍼브, 2017.
심상교, 『고성오광대』, 화산문화, 2000.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 집문당, 1986.

31) 현재 합천군 덕곡면 율지 시장
32) 송석하, 『오광대 기원과 유래』, 온이퍼브, 2017, p.10.
33) 위의 책, p.10.
34) 위의 책, p.11.
35) 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극, 산대극이라 부르기도 함.
36) 사물 현상의 발생 발전의 근원을 5가지 물질의 상호 작용으로 본 것을 말한다.

오광대 놀이의 정의

-오광대놀이의 정의

국어국문학과 20191049 박유진

오광대 놀이란, 경상남도 일대에 분포하는 산대도감계통극(山臺都監系統劇)의 한 분파인 영남형(嶺南型) 탈놀음이다.

발생지는 낙동강변의 초계 밤마리[栗旨] 장터의 대광대패라고 하나, 이에 대한 이견과 논란도 존재하며, 산대도감극 형성 초기의 분파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밤마리 장터에서 거상(巨商)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직업적 유랑광대인 대광대패[竹廣大牌]가 의령 · 신반 · 진주 · 가산 · 산청 · 창원 · 통영 · 고성 · 진동 · 김해 · 가락 · 동래 · 부산진 등의 경상남도 내륙과 해안선일대의 각지에 퍼져 탈놀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초계 밤마리 대광대패와 기타 유랑광대들이 각지로 순회공연을 하였거나 밤마리 장터에서 공연한 것을 보고 간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고향에서 탈놀이를 시작한 데서 토착적인 가면극인 오광대가 비롯되었다고 한다.

오광대라는 이름은 오행설(五行說)에 의거한 오(五)로서, 진주와 마산의 오광대는 오방신장무(五方神將舞)가 나온다. 이를 근거로 오행에서 연유한 5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 이 오방신장에 합치되는 다섯 양반을 만들어 연출하기도 하고, 진주에서는 문둥이광대도 다섯을 등장시키며, 그 문둥이 가면은 오방색인,청(靑)·백(白)·적(赤)·흑(黑)·황(黃)으로 만들어졌다. 통영과 고성의 오광대는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었다. 또 밤마리 오광대는 대광대 죽(竹)방울받기를 비롯한 곡예와 함께 '말뚝이' '비비새(영노)' '중과 각시', '할미 · 영감 · 지대각시', '사자' 등의 다섯 가지 놀이장면이 있었다 한다.

주된 내용은 ① 벽사의 의식무(오방신장무), ② 양반에 대한 모욕, ③ 파계승에 대한 풍자, ④ 일부와 처첩의 삼각관계에서 오는 가정비극, ⑤ 축사연상(逐邪延祥)의 축원무(사자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지방의 탈놀이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중부와 서북지방의 탈놀이에 비하여 파계승놀이가 약화되어 있으며, 양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말뚝이재담은 가장 신랄하게 표현된다.

연출형식은 다른 탈놀이와 마찬가지로 춤이 주가 되고, 재담(대사)과 노래와 동작이 곁들여 연기된다. 춤은 역시 염불·타령·굿거리 등 민속무용에 쓰이는 반주곡들에 의하여 추어지나, 특히 농악의 사물(四 物) 즉 꽹과리가 주도하는 장구와 북 등 타악기의 반주음악으로 지방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특이하다. 오광대와 야류의 춤은 '덧뵈기춤'이라고 부르며, 특히 말뚝이춤 같은 것은 건무(健舞)의 일종으로 빠르고 힘찬 춤이었으나 지방에 따라 후대에 내려오면서 차차 완만한 춤으로 약화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오광대 중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제6호「통영오광대 統營五廣大」, 제7호「고성오광대 固城五廣大」, 제73호「가산오광대 駕山五廣大」등이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성미,「오광대 탈놀이의 지역문화성 연구」,『인문논총』34, 2014, pp.269-289.
이병옥,「인문사회과학영역 : 영남춤의 생태민속학적 고찰」,『한국무용연구』, 29(2), 2011, pp.81-103.
한국 민족대백과사전, <오광대놀이>. 한국학 중앙연구원.

멋과 얼이 담긴 고성 오광대 탈

-고성 오광대놀이에 쓰인 탈의 종류

인문학부 20201093 전해원

제 1과장 문둥북춤은 양반의 자손이지만 조상들의 누적된 죄업으로 문둔병에 걸려 고통 받는 문둥이가 비분과 울분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과장의 주인공인 문둥이 탈은 전체적으로 검붉은 색이며 얼굴 전체에 살이 무른 자국들을 표현하였다. 또한, 눈썹이 없고 이빨도 들쭉날쭉하다. 문둥병은 당시 천형으로 여겨졌으며 조상의 누적된 죄과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문둥이>

제2과장은 오광대놀이이다. 오광대놀이는 말뚝이가 춤과 재담으로 양반들의 어리석은 면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다.

<청제양반>

<백제양반>

<적제양반>

<흑제양반>

<황제양반>

고성 오광대는 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아 오방 양반이 등장하여 오방위의 악귀를 쫓고 복을 기원하는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의 연희 내용에서는 탈과 옷의 오방색 외에는 오방신장무의 영향이 남아있지는 않다.

동방 청제양반은 오행[37] 중 나무(木)와 봄, 간과 관계한다. 서방 백제양반은 오행 중 쇠(金)이며 가을과 폐, 기관지와 관계한다. 남방 적제양반은 오행 중 불(火)이며 여름, 심장과 관계한다. 북방 흑제양반은 오행 중 물(水)이며 겨울, 신장과 관계한다. 중앙 황제양반은 오행 중 흙이며 중심, 위장과 관계한다. 양반들 중 으뜸이라고 하여 보통 원양반으로 불린다.

37) 오행 (五行) :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 가지의 원소.

<말뚝이>　　<홍백양반>　<종가도령>

말뚝이는 양반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억압적인 지배자인 양반을 질타하는 역할이다. 눈꼬리가 위로 향해있고, 코와 입이 크다. 타지방의 말뚝이 탈은 일상적인 평범함을 벗어나 괴력을 강조하는 얼굴인데 반해 고성의 말뚝이 탈은 일상적인 건강함을 표현한다.

얼굴의 반은 붉고 반은 하얀 탈인 홍백양반은 남양 홍씨와 수원 백씨, 두 사람의 아버지를 가진 혈통 불명의 양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렇듯 근본부터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 자체가 양반을 심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가도령은 원양반의 아들로 이전에는 '초란'이라고 불렸다. 놀이마당에서 우스운 짓거리를 하여 관중들을 웃기는 어릿광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군무는 역동적이고 신비를 느끼게 한다.

제3과장 비비과장은 비비라는 괴물이 양반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다.

<비비>　　<젓 양반>

비비탈은 머리에 뿔이 나있고 날카롭고 긴 송곳니가 빠져나와 있는 도깨비의 형상이다. 얼굴 전체에는 알록달록한 무늬를 그려 넣었고 턱 주위에는 갈기 같은 수염이 있다. 무엇이든 다 잡아먹는 영노이다.

젓 양반은 비비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연기가 해학적이고 활기차다.

제 4과장은 승무과장이다. 승무과장은 승려가 세속의 유혹에 빠져 파계하는 것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려>　　<선녀2명>

승려탈의 얼굴은 둥글넓적하고 입은 아래로 쳐져있으며, 눈은 동그랗다. 이마와 눈가에도 주름이 깊게 잡혀 있어 젊은 승려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선녀를 유혹하여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당시의 종교문제를 드러낸다.

승려를 유혹하는 선녀의 탈은 흰 피부, 초승달 같은 검은 눈썹, 이마와 양 볼에 연지 곤지를 찍고 화장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다.

마지막 과장인 제 5과장, 제밀주 과장은 처인 큰 어미와 첩인 제밀주 사이의 다툼을 그린다. 그 다툼으로 큰 어미가 죽게 되고, 이로 인해 상여를 매고 나가는 내용이다.

<시골 영감> <큰 어미> <제밀주> <마당쇠> <상주> <황봉사>

시골 영감은 집을 나가 첩을 얻어 놀고 처첩 관계의 가정비극을 만드는 주요 인물이다.

시골 영감의 본처인 큰 어미는 얼굴의 반은 붉은색, 반은 녹색인데 붉은색 쪽의 얼굴은 눈썹, 눈, 입이 모두 아래로 쳐지고, 녹색인 쪽은 위로 올라가 있다. 즉 젊음과 늙음,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여 삶의 의미와 생명의 순환을 되새기게 하는 탈이다.

제밀주는 영감의 첩으로 큰 어미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아이가 죽자 큰 어미를 죽게 한다. 달걀형 얼굴에 흰 피부이며 가운데 가르마를 탄 검은 머리의 젊은 여자 얼굴이다.

마당쇠는 영감의 하인으로 입술이 한쪽으로 비틀어져서 영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탈이다. 눈꼬리는 아래로 쳐졌으며 양 볼에 커다란 점이 하나씩 있어 어리석은 인상이다.

상주는 큰 어미의 상여를 따라서 상을 주관하는 인물이다. 삼베와 상주모를 입으며 미간과 턱에는 황색의 수염이 있다.

황봉사는 제밀주가 아이를 순산할 때 옆에서 경문을 읽는다.

《참고문헌》

고성 오광대 보존회, “탈 사진”, http://www.nfm.go.kr/home/index.do, 2020.04.16.

고성 탈 박물관, “예능탈-고성오광대” https://www.goseong.go.kr/tal/index.goseong 2020.04.15.

국립민속박물관, “고성 오광대”, http://www.nfm.go.kr/home/index.do, 2020.04.15.

경남의 대표 탈놀음, 오광대 놀이

-오광대 놀이의 지역별 특색

인문학부 20201088 임정환

오광대놀이는 지역마다 구성과 내용, 인물의 이름마저 다르다. 오광대놀이는 낙동강변의 초계 밤마리에서 시작되어 경남의 통영, 가산, 진주, 고성 등으로 전파되어 각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였고, 탈놀이의 형식과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

고성 오광대 놀이에서는 '보리이삭줍기'라는 춤사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춤사위는 중부나 해서지역의 탈놀이에는 찾아보기 힘든 동작들인데 이를 통해 고성의 지역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초계, 신반, 김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문둥이과장이 모두 들어있다. 이를 통해 경남지방은 문둥병과 관련 깊음을 알 수 있는데 경남지방 곳곳에는 나병 환자촌이 집결되어 있을 정도로 문둥이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남지역의 특성 때문에 문둥이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가면극에 투입되었다고 한다.[38] 경남지방에 문둥이과장을 살펴보면, 가산과 진주는 독무가 아닌 5인의 문둥이 등장과 통영은 한 명이지만 대사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고성은 내용전달 방식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사가 전혀 없는 춤으로만 전달하고, 그것이 군무가 아닌 독무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진주 오광대의 양반과장에서 특히 지역문화를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지역의 명소들을 나타냄으로써 탈놀이 마당의 친밀감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노름꾼과장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산과 진주는 문둥이과장은 같지만 노름꾼과장은 등장인물도, 내용도 달라진다. 특히 노름꾼과장은 김해 가락과장이 독립적인데 굿의 기능에 포함된 투전놀이가 탈놀이에서 극적 재미를 위해 독립된 것으로 보인다.[39]

통영과 학산은 과장의 구성, 가면과 인물의 이름까지 모두 같다. 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공동체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산은 사자무과장이 없지만 영노과장에서는 영노가 사자탈을 쓰고 나오는 등 다른 지역들과 구별된다.

할미, 영감과장은 양반과장과 함께 모든 오광대놀이에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내용이 다른데 가산에서는 영감이 부부싸움 중에 조상단지를 깨부셔 이 때문에 기절하여 죽지만 김해에서는 영감이 할미로 인한 화병 때문에 죽는다. 또한 가산, 김해, 진주에서는 탈놀이에서 오구굿이 등장하지만 통영과 마산에서는 각각 용왕제와 산신제라는 굿이 등장한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오광대놀이의 유래, 과장, 춤의 형태, 내용마저 달라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운미·이미희, 「고성오광대 문둥북춤에 나타난 지역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07, pp.45-61.

노성미, 「오광대 탈놀이의 지역문화성 연구」, 『인문논총』 34,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pp.269-289.

38) 김운미, 이미희, 「고성오광대 문둥북춤에 나타난 지역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1, 대한무용학회, 2007, pp.45~61.

39) 노성미, 「오광대 탈놀이의 지역문화성 연구」, 『인문논총』 34,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pp.269~289.

가면 속에서 세상을 노래하다.

-오광대놀이의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51125 이정수

오광대놀이는 가면극이 변형되어 나타난 놀이들 중 하나로, 경남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경남의 향토적 춤인 덧베기춤[40]이 더해져 신나는 가락과 춤사위를 선보이는 놀이가 되었다. 오광대(五廣大)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오행설(五行說)에 의거하여, 오행설의 오(五)를 오광대의 앞의 오(五)에 붙였다는 것. 오광대놀이 내부에 오방신장[41]무가 존재하는데, 이 오방신장이 다섯 명인 것을 따서 오(五)를 붙였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42]

오광대라는 명칭이 붙은 것에 대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오광대놀이는 무속신앙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탈놀이에서 주로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데, 탈춤에서 탈을 쓰고 춤을 추는 행위는 현실을 풍자함과 동시에 민간 신앙적인 요소가 내포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43] 춤을 추는 행위는 신명 즉, 민중들이 무당을 앞세워 신과 교감하고, 그러한 와중에 이뤄지는 신명을 통해 현실에서의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44] 가면극의 변형인 오광대놀이가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은 탈춤에서 이야기하는 신명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현실에서 받는 고통과 갈등을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기대어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광대놀이는 하나의 뿌리로 시작하였으나 그 가지는 각각 다른 곳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지역마다 세세한 내용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오광대놀이 중 대표적으로 고성 오광대놀이를 보자면 우선 5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과장 '문둥북춤', 제 2과장 오광대, 제 3과장 비비, 제 4과장 승무, 제 5과장 제밀주가 그것들이다.[45] 다른 지역의 오광대놀이와는 다르게 오방신장무, 사자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고성에서의 오광대놀이는 신앙과 관련된 것들은 제쳐두는 것을 보여준다.[46] 대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보여주는데, 1,2,3 과장의 경우에 양반계급에 대한 서민의 반항,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4과장은 파계승에 대한 풍자, 5과장은 처첩 삼각관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47] 고성 오광대놀이를 비롯한 오광대놀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그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양반비판임을 알 수 있다. 오광대놀이가 조선 후기부터 발달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후기에 일어난 양반의 폐단에 서민들이 많은 괴로움을 느꼈고, 이를 달래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오광대놀이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48]

오광대놀이는 서민들이 자신들이 현실에서 겪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가면극들과 마찬가지로 무속신앙 즉, 사상적, 영적인 것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기도 하였고, 직접 현실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을 풍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고전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한의 승화를 오광대놀이는 춤과 노래라는 장치를 통하여 이뤄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

40) 주로 경상도지역에서 추는 토속춤의 하나로, 역신으로 인해 생겨난 탈인 덧을 베어 버린다는 주술적 의미에서 추는 다양한 형태의 춤

41) 다섯 방위(동·서·남·북·중앙)를 관장하며 방위하는 신

42)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 집문당, 1986, p.38.

43) 이동숙, 「전통 : 통영 오광대에 내재된 춤 신명 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4권 2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04, p.67.

44) 위 논문, pp.66~67.

45) 강용권, 「고성(固城)의 오광대(五廣大)와 농요(農謠)」, 『석단농촌』 27권, 동아대학교 석단학술원, 1998, pp.144~146.

46) 위 논문, p.143.

47) 위 논문, p.144.

48) 박성석, 「오광대 유형분류」, 『배달말』29, 배달말학회, 2001, p.144.

또한, 이러한 문화를 각 고을로 가지고 들어가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내며 지역 사람들과의 단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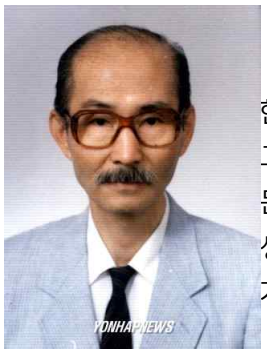
《참고문헌》

강용권, 「고성(固城)의 오광대(五廣大)와 농요(農謠)」, 『석단농촌』 27권 0호, 동아대학교 석단학술원, 1998, pp.139-156.
박성석, 「오광대 유형분류」, 『배달말』 29권 0호, 배달말학회, 2001, pp.135-165.
박진태,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 새문사, 1990.
이동숙, 「전통 : 통영 오광대에 내재된 춤 신명 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4권 2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04, pp.64-76.
장상박,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 집문당, 1986.

인식의 시인 김춘수의 삶

-꽃의 시인 김춘수의 생애와 연보

인문학부 20201059 양우혁



김춘수 시인은 1922년 11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유복하고 유교사상이 강한 집안에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으며 1955년 5년제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일본인 담임과 많은 마찰을 겪고 졸업을 앞둔 5학년 11월에 경기공립중학교를 자퇴하고 일본 동경으로 넘어가서 유학생활을 하며 우연히 서점에서 본 릴케의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등을 보고 감탄했다.[49]

김춘수 시인은 1940년 니혼대학에 입학하여 다니면서 제 1의 습작기가 시작되었지만, 호기심에 시작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다, 작업장에서 만난 조선인들과 천왕과 총독 정치에 대해 비판을 해서 경찰에게 끌려가 요코하마 헌병대에서 1개월 세다가야 경찰서에서 6개월간 유치되었다가 서울로 송치되었고 이때 대학 생활을 하며 썼던 습작들은 다 빼앗겨서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한다.[50]

한국으로 돌아온 김춘수 시인은 징용이 두려워 1945년 해방 전까지 두더지 생활을 하였고 신변의 불안 때문에 문학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었고 따라서 김춘수 시인의 제 2의 습작기는 8.15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고 1946년 통영 중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9월에 「해방 1주년 기념 사화 집」에 시 「애가」를 발표하며 데뷔하였다.[51]

실존주의 철학이 일본을 건너 상륙하였을 때 김춘수 시인은 19세기의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에 관심을 쏟았고 학생 때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세계가 연상으로 떠올랐다고 하며 후에 '나는 비로소 아류의 티를 벗고 내 나름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것이 릴케류 관념시다'라고 말 하였고 꽃을 소재로 하여 상징주의적 빛깔이 지은, 이데아를 추구하는 시들이 연작으로 10편정도 쓰여 졌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꽃」과 「꽃을 위한 서시」등이 있다.[52]

김춘수 시인은 니혼대 중퇴 이유로 정식 교수 자격을 받지 못 하다가 1959년 4월, 문교부 교수 자격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국어국문학과 교수 자격을 인정받았고, 6월에 제 5시집 「꽃의 소묘」(백자사) 11월에 제 6시집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춘조사)을 출간 하였다[53]

김춘수 시인은 초기 시 경향은 릴케의 영향에 의해서 관념적인 것들이 많이 쓰였지만, 1960년대 이후에 시 쓰기에서 관념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순수시를 시도하면서 그것을 '무의미시'라 명명하였다 김춘수가 1969년의 출간한 「타령조 기타」는 이전까지의 존재 탐구의 시 「꽃을 위한 서시」,「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에서 무의미시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집이다.[54]

---

49) 김춘수, 『김춘수 시 전집1』, 현대문학, 2004, p.1147.
50) 김춘수, 『왜 나는 시인인가』, 현대문학, 2005, p.71.
51) 김춘수, 위의 책, p.72.
52) 김춘수, 위의 책, p.76.
53) 김춘수, 『김춘수 시 전집1』, 현대문학, 2004, p.1148.
사진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0495128, 2020.04.22.
54) 서준섭, 「김춘수 특집 : 꽃·여우·처용·도스토예프스키 작품론2 : 순수시의 향방 -1960년대 이후의 김춘수의 시 세계」, 『작가세계』, 세계사, 1997, p.75.

무의미시의 대표적인 예로 1970년대 초에 쓴 장편 연작시 「처용단장」 제 1부와 2부가 있지만 1990년대 초 「처용단장」제 3부와 4부의 완결을 계기로 그는 무의미 시론을 스스로 해체, 부정하고 의미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시의 세계로 귀환하였다[55]

1999년 부인인 명숙경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김춘수 시인은 2001년 4월,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인 제 15집 「거울 속의 천사」(민음사)를 출간하게 되고, 작품 활동을 하다 2004년 12월 29일 세상을 떠났다.[56]

《참고문헌》

김춘수, 『김춘수 시 전집1』, 현대문학, 2004.
김춘수, 『왜 나는 시인인가』, 현대문학, 2005.
서준섭, 「김춘수 특집 : 꽃·여우·처용·도스토예프스키 작품론2 : 순수시의 향방 -1960년대 이후 김춘수의 시 세계」, 『작가세계』, 세계사, 1997.

<사진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0495128, 2020.04.22.

55) 서준섭(1997) 위 논문, p.74.
56) 김춘수, 『김춘수 시 전집1』, 현대문학, 2004, p.1150.

김춘수 '의미'에서 '무의미'로의 변화

-김춘수 작품세계의 변화 과정

인문학부 20201009 길주영

김춘수를 국문학사에서 부각시킨 것은 '무의미시론'이었다. 하지만 '무의미시론'으로 오기까지 김춘수의 시세계는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첫번째 시기는 의미의 시기로서 감각과 관념의 형태로 나타나며, 존재론적 입장을 보인다. 김춘수의 첫 시집 '구름과 장미'는 감각과 관념의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구름'은 '감각적 대상'을 '장미'는 이국적 취미가 동반된 '관념적 대상'을 뜻한다고 한다.[57] 그의 설명은 그의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가 감각과 관념의 산물이었음을 시사하고 있고, 이것은 그가 첫 시집을 간행했을 때 바로 감각과 관념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세계관에 의해 시작품들이 창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난 존재의식은 릴케와 하이데거를 통해 시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부재와 소멸, 사물의 인식을 통한 존재탐구의 형태로 나타난다.[58]

두번째 시기는 의미와 무의미의 간극기이다. 이 시기는 무의미의 실험적 시기인데 초기 시에서 추구하던 전통적인 시 양식을 거부하고 모더니즘적 실험을 시도하며 시에서 '의미'가 보류되고 이미지 중심의 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언어에서 의미를 제거하여 리듬만이 남도록 하거나 언어와 이미지 자체가 시가 되는 서술적 심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59] 하지만 무의미시는 시와 대상과의 거리가 없어진 데서 생기는데 이것은 무의미를 추구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의미 추출도 가능하여 대상의 소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60]

세번째 시기는 무의미의 시기이다 .김춘수가 존재에 대한 긴 탐구를 거쳐 도달한 것은 '허무의식'인데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시에서 의미를 배제시킨 무의미의 세계로 방향을 전환하였다.[61] 또한 초기에는 '꽃'에 관한 일련의 시들을 통해 존재와 언어의 문제를 탐구했지만 언어로는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 보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이같이 존재 탐구의 시기들을 보내면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새로운 시 경향을 선보이는데 이것이 문자의 통사구조 해체로 나타난다.[62] 이렇게 통사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이 '처용단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 김춘수 자신이 겪은 역사의 수난을 시의 내용이 아니라 치밀한 묘사와 통사구조를 파괴함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63]

---

57) 김춘수, 『김춘수 시론전집1』, 현대문학, 2004, p.528.
58) 표문순, 「김춘수 시 연구: 시기별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p.3.
59) 김춘수, 「한국 현대시의 계보」, 『김춘수 시론전집 1』, 현대문학, 2004, p.506.
60) 김춘수, 『김춘수 전집 1』, 문장사, p. 512.
61) 표문순, 위 논문, p.50.
62) 표문순, 위 논문, p.58.
63) 표문순, 위 논문, p.64.

네번째 시기는 자기인식의 시기로 무의미시를 추구하며 의미라는 구속에 해방되었지만 의미화 된 대상으로의 일상성은 상실하게 된다. 결국 김춘수의 무의미시가 최종적으로 만난 것은 허무이며 의미라는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으나 다시 의미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나 의미의 세계를 다시 추구한다고 해서 이전 무의미시에서 추구하였던 서술적 이미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변신을 산문시라는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서서 잠자는 숲'이라는 작품에서 회상과 환상으로 엮어져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면서 몽상과 현실이 접촉하는 시적 융합의 방법으로 나타난다.[64] 이것은 철저하게 시적인인식이고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기표현이다. 이제 절제된 긴장에서 벗어나 조금 느슨하고 편안한 심경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에서 김춘수는 다시 산문시를 시도하였다.[65]

이렇게 김춘수의 시 변화를 4가지시기로 살펴보았고 이 변화는 단순한 실험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존재에 대한 근원, 인간의 운명에 끝없는 탐구가 다양한 시의 방법들을 만들어냈다.[66]

《참고문헌》

김춘수, 『김춘수 시론전집1』, 현대문학, 2004.

김춘수, 「한국 현대시의 계보」, 『김춘수 시론전집 1』, 현대문학, 2004.

김춘수, 『김춘수 전집 1』, 문장사, 2004.

윤재웅, 『머리 속의 여우, 그리고 꿈꾸는 숲 - 김춘수의 산문시 『서서 잠자는 숲』을 읽고』, 현대시, 1993.

표문순, 「김춘수 시 연구: 시기별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4) 윤재웅, 『머리 속의 여우, 그리고 꿈꾸는 숲 - 김춘수의 산문시 「서서 잠자는 숲」을 읽고』, 현대시, 1993, pp.23.

65) 표문순, 위 논문, p.3.

66) 표문순, 위 논문, p.78.

존재론적 의미를 가진 시, 김춘수의「꽃」

-김춘수 꽃에 대한 해석, 존재론적 의미와 패러디 시

국어국문학과 20191012 김래경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전문[67]

김춘수의 꽃은 사실적인 존재가 아닌 관념적인 존재인 '꽃'을 소재로 삼았다. 꽃의 3연에는 화자의 갈망이 담겨 있다. 즉 주체인 '나'도 대상인 너에게로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68] 대상을 인식하기 전엔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하던 '꽃'이 2연에서 '이름을 부르고'라는 행위를 통해 단순히 무의미한 '몸짓'이었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인 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김춘수는 꽃에 기대어 의미 있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노래했다.

통사 구조상 이 시는 완벽한 반복을 이룬다.[69] 문장구조뿐만이 아닌 시제, 경어법, 문장종결법 등에서 반복이 나타난다. 하지만 문장의 길이나 구의 구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김춘수의 꽃은 흔히 두 가지 해석에 의해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존재론적 시이고 다른 하나는 연시이다.[70] 시 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시는 연시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 시는 대중들에게 연시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로도 볼 수 있다. 이 시의 큰 주제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다.

---

67)장소원,「한국 현대시를 통해 본 상호텍스트성-김춘수의 꽃과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의 경우」,『텍스트의언어학』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7, p.6.
68) 위의 논문, p.8.
69) 위의 논문, p.10.
70) 김청우,「김춘수 꽃의 인지시학적 연구:시의 구조와 의미의 가능성에 관하여」,『어문논총』제27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5.

이 시에선 '나'가 그를 찾고 있었고 찾는 행위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71] 이 행위를 통해 처음에 무의미했던 그의 존재가 '나'의 부름을 인해 그가 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시의 '나'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고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김춘수의 「꽃」은 수많은 패러디 작품을 가지고 있다.[72] 그 중 장준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킬 수 있다면'이 대표적이다. 두 작품은 구조적으론 비슷한 점이 있지만 장정일의 시는 꽃과 다르게 관념과 동떨어져 보이는 라디오를 소재로 등장시킨다. 대상을 인식하기 전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대상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유사하다. 하지만 장정일의 시는 핵심어휘인 라디오가 사람들에게 편의나 실용성에 의해 작동하는 사물로 인식된다. 만일 사람들의 사랑이 라디오처럼 일회적이고 편의적인 것 이라면 이 시는 사랑이 순간적으로 시작되고 순간적으로 끝낼 수 있는 대상이 된다.[73] 이런 점도 김춘수의 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참고문헌》

김청우, 「김춘수 꽃의 인지시학적 연구: 시의 구조와 의미의 가능성에 관하여」, 『어문논총』 27,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5, pp.95~117.

이진흥, 「김춘수의 꽃에 대한 존재론적 조명」,『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1981, pp.95~117.

장소원, 「한국 현대시를 통해 본 상호텍스트성-김춘수의 꽃과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의 경우」, 『텍스트의언어학』 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7, pp.1~19.

71) 이진흥, 「김춘수의 꽃에 대한 존재론적 조명」, 『한민족어문학』 8, 한민족어문학회, 1981, p.5.
72) 장소원, 「한국 현대시를 통해 본 상호텍스트성-김춘수의 꽃과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의 경우」, 『텍스트의언어학』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7, p.6.
73) 앞의 논문, p.11.

김춘수의 문학적 자전기록으로서의『처용단장』

-『처용단장』의 내용 분석

국어국문학과 20191018 김서연

『처용단장』은 김춘수가 1969년(48세)때 <현대 문학>에 발표하고, 1974년(53세)때 시집 <처용>에 수록한 작품으로, 제1부는 모두 13편, 제2부는 8편, 제3부는 48편, 제4부는 17편으로 되어 있는 연작장시이다. '처용'이라는 표제를 쓴 그의 글들의 공통적 특징은 시인의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까지 인상 깊었던 사건을 다룬 유년시절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또 시인이 체험한 '폭력성'과 그로 인한 '고통'이 기록되어 일제치하에 겪었던 수난 체험과 허무감이 주요하게 형상화되었다.

『처용단장』의 제1부는 주로 바다와 눈의 풍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2부부터 제4부까지는 시인의 과거 경험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항이 표현되었다. 이 내용 항들의 제재들을 통하여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김춘수가 일제강점기 말인 22살 때 겪었던 고문과 감방 체험이다.[74] 시의 핵심부뿐만 아니라 김춘수의 시 전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 >, 혹은 괄호 이미지가 그의 감방 안 쪽창과 연관되어 그려지는 측면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부와 4부의 중심내용이 부조리한 역사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그와 유사한 투옥 체험을 겪었던 역사상 인물들의 최후 풍경을 묘사한 것은 그의 감방 체험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준다.[75]

김춘수의 일제하 감방 체험은 단순히 일제의 압박이라는 지점 이외에 또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야스다'라는 일본 이름을 지닌 한국인 고학생 헌병대의 고발로 6개월간의 고문과 감옥 체험을 하게 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김춘수를 고문한 것은 일제이지만 그를 고발한 것은 동료 고학생, 같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증오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자동기술과 증오감 표출이 무의미어구와 함께 등장한다.[76]

ヨコハマ헌병대가지빛검붉은벽돌담을끼고달아나던ヨコハマ헌병대헌병軍曹某에게나를넘겨주고달아나던박승줄로박살내게하고木刀로박살내게하고浴槽에서氣를絶하게하고달아나던 創氏한일본姓을짊어지고숨이차서쉼표도못찍고띄어쓰기도까먹고달아나던식민지반도출신고학생헌병補ヤスタ 某의뒤통수에박힌 눈 개라고부르는인간의두개의 눈 가엾어라어느쪽도동공이없는 [77]

-『처용단장』 제3부 5 전문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일제하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던 저항시인의 성격이나 그런 강인한 정신과 의지를 보여주는 부류는 아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일제하에 일본 유학생 신분으로 겪었던 고통에 대한 호소는 우리의 역사적 격동기에 우리 지식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억울함을 상기시킨다.

---

74) 최라영,『김춘수 시 연구』, 푸른사상, 2014, p.16.
75) 위의 책, p.17.
76) 권온.「김춘수의『처용단장』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8.
77) 윤정업,「김소진의 <처용단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 처용 담론의 이데올로기 연구」,『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13, p.23.

일제 말에 지식인이 6개월이나 그 이상의 감방 체험을 한 일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시집 한 권이 넘는 분량의 시편들로 창작하여 자전적인 고통의 내적 상처들을 본격적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 시문학사에서는 매우 드문 자전적인 기록이다. 즉 자아의 정체성을 침범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표현함으로써 식민 치하를 살았던 일반 지식인들의 고통의 부분들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생생한 증언이라는 점에서 『처용단장』은 우리 시문학사에서 드물고도 독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는 김춘수가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무의미의 문제들을 깊이 사유함으로써 새로운 표현 기법을 창출해낸 점, 그리고 부조리한 역사체험에서 오는 억압을 시로 승화시킨 점 등이 시의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 시인은 '처용연작' 이후 거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의 무의미시를 개성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미적 언어의 경지로 승화시켜 나갔다.

《참고문헌》

강경화, 「김춘수의『처용단장』의 표현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p.32~40.

권온, 「김춘수의 『처용단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2, pp.8~14.

김두한, 『김춘수의 시세계』, 문창사, 1992.

김춘수, 『의미와 무의미』, 문학과 지성사, 1976.

윤정업, 「김소진의 <처용단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 처용 담론의 이데올로기 연구」,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13, pp.20~28.

이남호, 『김춘수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5.

최라영, 『김춘수 시 연구』, 푸른사상, 2014.

김춘수가 시사하는 시대의 아픔과 그의 언어

-언어의 자유성으로 본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51121 이성규

김춘수는 존재론적 관심에 집중한 시를 쓰는 한편 자신의 시작 기법을 창안하기 위해 고투하거니와, 시에서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형성하고자 한 무의미시론의 정립 과정과 자신이 역사의 피해자이며 그런 까닭에 역사 허무주의자이며 역사 부정주의자임을 강조하는 시점이 겹쳐 있다. 또한 김춘수는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폭력과 동일시하면서 사회성과 역사성을 시에서 탈각시키고자 했다.[78] 대상과 관념으로부터 언어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무의미시의 기획에 상당히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역사에 대한 부정과 거부라는 것이다. 언어와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언어에 한없는 자유를 주고자 한 기획을 통해 고안된 무의미시가 자신의 삶과 시에서 역사와 사회 문제를 부정하고 배제하고자 한 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79]

김춘수가 이렇게 역사에 대한 부정이 생긴 것은 중학 시절 담임과의 갈등으로 자퇴하게 된 것과 일제 말 헌병대와 경찰서에 투옥된 사건, 이어서 해방까지 숨어 지내야 했던 생활과 한국전쟁을 겪었던 일, 그리고 대학 중퇴라는 학력 때문에 교수 자격을 얻지 못한 억울함이 이유가 될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시대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은 것을 되새기며 그는 “역사를 악으로 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결국 역사 허무주의자, 역사 부정주의자로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이러한 피해의식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80]

김춘수는 본인이 겪어온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작품을 통해 고발하려 했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부분을 토로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란 타자에 대해 의식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성찰하게끔 하는 원초적인 출발점인 것이기 때문에 자책과 자학만을 표현한건 아니었다. 부끄러운 순간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혼자만의 탈출”을 시도하였고, 그것의 시적 형상화가 바로 언어와 지시 대상, 언어와 관념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언어의 무한한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무의미시인 것이다. 여기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의식과 억압이 큰 작용을 하였는데, 그에게 끊임없이 부끄러움으로 작용하는 감옥 체험과 역사와 사회의 폭력에 대한 증언과 고발이 이러한 시적 전회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81]

김춘수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발언을 하며 역사의 폭력을 고발하고 감옥체험의 부끄러운 순간을 고백한다. 특히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이것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순간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타개할 방법으로서 탈출을 시도하였고, 그것의 시적 형상화가 바로 문학사에 남긴 무의미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82]

---

78) 전병준, 「김춘수 시의 변화에서 역사와 사회가 지니는 의미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p.164.
79) 위 논문, p.167.
80) 위 논문, p.168.
81) 위 논문, p.180.
82) 위 논문, p.182.

《참고문헌》

염문정.「김춘수 '무의미시'의 의미」,『동남어문논집』27, 동남어문학회, 2009, pp.95~110.
전병준.「김춘수 시의 변화에서 역사와 사회가 지니는 의미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pp.161~186.

유치환의 걸음을 따라

-유치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91078 이혜미

유치환은 시인이자, 교육인으로 호는 청마이며, 생명파 시인으로 불린다. 그는 1908년 음력 7월 14일 경남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에서 한의사였던 유준수의 8남매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1927년 동래 고등보통학교 5학년을 졸업하고 1928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그 후 중퇴를 한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사진학원에 다녔다. 1929년 4월, 경성 중앙보육학교 출신 안동 권씨 재순 여사와 결혼했다.[83]

1930년 9월 가형 동랑과 함께 발간한 회람지「소제부」에 시 <축복> 등 26편을 발표했고, 1931년 『문예월간』 제2호에서 <정적>을 발표하여 문단 데뷔를 했다. 1939년 12월, 『청마시초(靑馬詩抄)』 발간, 시 <깃발> 등 55편 수록했다. 1947년 6월, 시집 『생명의 서』를 발간하여 시 <박위> 외 59편 수록했고, 조선 청년문학가협회 제1회 시인상을 받았다. 1948년 9월, 시집 『울릉도』 발간, 시 <동백꽃> 외 34편 수록했고, 1949년 5월, 시집 『청령 일기』 발간하여 시 <심산(深山)> 외 65편 수록했다. 또한, 제2회 서울 특별회 문학상을 수상했다. 1951년 9월, 시집 『보병과 더부러』 발간, 시 <들꽃과 같이> 외 33편 수록되었다. 1953년 수상록『예루살렘의 닭』 발간, 시 <선한 나무> 외 57편 수록했고, 1954년 10월 시집 『청마 시집』 발간(시집 『기도가』와 『행복은 이렇게 오더니라』 합본. 시 <행복> 외 111편 수록했다. 이후 1956년 3월, 제1회 경북 문화상 수상했다. 1957년 12월, 시집 『제 9시집』 발간, 시 <동양의 봄> 등 40편과 단장(短章) 95편 수록했고, 1958년 12월, 『유치환 시선』 발간, 1959년 3월 수상록『동방의 느티』 발간, 그해 12월, 자작시 해설 『구름에 그린다』를 발간했다. 1958년 2월, 1957년도 아세아 재단 주간 제5회 자유문학상과 그해 12월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1960년 12월 시집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발간했고, 1962년 12월 수필집 『나는 고독하지 않다』 발간했다. 또한, 1962년 7월 제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했다. 1964년 11월 시집 『미루나무와 남풍』 발간, 시 <성봉> 등 41편 수록했고, 1964년 12월 부산시 문화상 수상했다. 1965년 11월 시선집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발간했다.[84]

그는 1967년 2월 13일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그는 총 10편의 시선집과 4편의 산문 선집으로 약 400개의 작품을 남기고 떠났다.[85]

《참고문헌》

서정학.「靑馬 柳致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상기.「柳致環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통영시 청마 문학관, http://www.tongyeong.go.kr/literature.web.2020.04.21

83) 통영시 청마 문학관, http://www.tongyeong.go.kr/literature.web, 2020.04.21.
84) 서정학,「靑馬 柳致環 연구」, 충남대학교, 1992, pp.59~60.
85) 조상기,「柳致環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p.160~164.

유치환의 생명을 향한 의지

-『생명의 서』 작품 설명

인문학부 20201063 오승원

유치환의 <생명의 서>는 강한 의지로 본질적 자아를 갈망하는 시이다. 유치환의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은 유치환의 시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1930년대 생명파인 유치환은 힘든 시기에 태어나 자연히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탐구를 자신의 시적 출발로 삼고 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灼熱)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86]

-<생명의 서> 전문

이승하는 유성호의 말을 빌려 유치환의 시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줄이면 허무와 맞서는 자신의 의지만이 애련한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인도할 수 있을 뿐이다.[87]라고 하였다. 이승하가 말한 유치환의 사상이 생명의 서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1연에서 유치환은 허무와 회의 속에서 병든 나무처럼 살아가다 자신의 일상적 공간을 버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찾아간다. 유치환은 일상적인 나를 회의감이 드는 존재, 초월해야 할 존재로 받아들였기에 일상성과 단절하여 절대 고독을 받아들이고 절망과 대결하기 위해 모든 것이 사멸한 절대고독 상태인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난 것이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진짜 나와 대면하고 본래의 나를 회복해서 회의와 허무의 삶을 초월하려 한 유치환은 3연에서 원시 본연의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면 즉, 본래의 나를 회복하지 못하면 차라리 사막에서 백골이 되어 새에게 쪼아 먹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환의 허무 의식의 극복에 대한 강한 집착은 힘든 시기에 좌절과 절망을 허무 의식으로써 극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88]

---

86) 유치환, 『생명의서』, 행문사, 1947, p.35.
87) 오세영, 「유치환에 있어서 허무와 의지」, 『한국시학연구』, 1999, pp.233~237.
88) 권성훈, 「청마 유치환 시의 비극적 성격과 미학 연구, 『춘원연구학보』, 2019, p.50.

1연에서 유치환은 독한회의와 자학과 분노에 가득 차 자신을 병든 나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병든 나무' 상태에서 벗어날 도피처로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극한 상황을 설정하는데 그 도피처가 모든 것이 사멸한 극한의 고독 상태인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점에서 유치환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강한 자학과 자신의 자아에 대해 끝없는 회의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초탈하기 위해 허무 의지와 생명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권성훈.「청마 유치환 시의 비극적 성격과 미학 연구」,『춘원연구학보』, 2019, pp.45~68.
박유미.「유치환시 연구」,『돈암어문학』, 1995, pp.87~112.
오세영.「유치환에 있어서 허무와 의지」,『한국시학연구』, 1999, pp.224~251.
유치환.『생명의 서』, 행문사, 1947.

유치환의 사랑을 담은 시

-유치환「행복」

인문학부 20201021 김수인

청마의 시중 사랑을 노래한 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연인부터 조국, 삶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상의 사랑 시가 있었으나 <행복>이 대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89] 편안한 산문 형식을 취하면서도 읽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게 만드는 시 <행복>은 청마가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줄곧 마음에 새긴 연정의 빛깔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 작품이다. 청마 사후수필집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에 의해 어느 정도 공인된 이영도에 대한 사랑의 편지는 무려 2,000여 통에 달한다고 한다.[90]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에메랄드 빛 환히 내다 뵈는
우체국 창문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 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91]

- <행복> 전문

2연 “행길을 향한 문으로 ~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를 보면 자연스러운 연결어미로 이루어진 이 전체의 구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시는 수미상관의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가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한다.

리듬과 낭송 면에서 표면적으로 대중성의 효과를 지니지만 사랑에 대한 순정은 사랑하는 이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점에서 아픈 목소리로 전화한다. ‘진홍빛 양귀비’의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89) 김말순,「청마 유치환 시 연구」, 금산: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42.
90) 최윤철,「청마 유치환 시 연구 : 순정과 영원의 노스탤지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26.
91) 유치환,『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시인생각, 2013, p.7

안타깝고 애틋한 순정을 설명할 수 있다. 양귀비는 매우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졌지만, 아편을 만들어내는 열매의 씨방을 품고 있다. 이는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은 이렇게 아름답고도 아름다우나 그 아름다운 순정의 사랑은 원초적으로 위험하고 불가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던 셈이다.

즉, 현실적으로 자랑스레 드러낼 수 없고, 허용되지 않는 사랑, 닿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도 청마 시에서 사랑의 특징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을 향하여 수없이 손짓했지만, 서로가 오붓하게 사랑을 나눴다는 흔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92] 또한, 이 시는 개인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시인 청마의 사랑에 대한 고민과 번뇌의 결과 혹은 인생의 통찰에서 오는 결과라 해도 좋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93]

《참고문헌》

유치환.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시인생각, 2013.
이균상. 「柳致環과 金春洙 詩의 對比 硏究」,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경숙. 「유치환 시 연구: 시의 언어와 문학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윤철. 「청마 유치환 시 연구: 순정과 영원의 노스탤지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2) 이균상, 「柳致環과 金春洙 詩의 對比 硏究」,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71.
93) 김말순, 「청마 유치환 시 연구」, 금산: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42.

이상과 현실 사이의 유치환

-유치환의 작품세계

철학과 20191085 장연승

유치환은 ‘생명파’ 시인으로서 그의 생명에 대한 애정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의 작은 부분까지 관찰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생명에 대한 애정이 그의 시의 바탕을 이루고, 허무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기존의 의지가 살아 있다. 당대 유치환 「생명의 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순교자 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행동적이기보다는 관망의 시선을 보이는데, 그것은 생명을 중시하는 인간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바위』『생명의 서』를 통해 살아서는 이것을 지양하여 그 반대로 뜨겁게 생명을 열애하고 열심히 꿈꾸고 노래하며 희노와 애련에 물들어가면서, 인간적으로 적나라한 본연 그대로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의 입장을 죽은 뒤의 가정으로[94] 생명을 중시하는 인간주의의 또 다른 면과 허무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초반 유치환은 생명을 중시하는 모습과 허무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며, 후반기엔 행복이라는 서정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창작한다. 유치환의 「행복」은 사랑과 세상의 고달픔이 적절한 서정의 형상화를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낸 시이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 하나니라’같이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 <바위>,<생명의 서>와 같이 현실 극복과 허무의 의지를 주제로 의지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제쳐두고 감성적인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유치환은 현대 생명파 관점에서 아나키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청마 시초>, <생명의 서>와 같이 의지적이고 자주적인 인간형과 주체적 삶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좌절되고 이러한 좌절과 극복 의지가 아나키즘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치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두려움, 외로움 등의 일체에서 벗어난 어떤 절대적 경지를 갈구하고 욕망했으나, 이를 찾는 과정에서 해결책으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허무주의적 사고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방인태. 「유치환 시의 인간주의 : 『청마시초』와 『생명의 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1991, pp.341~357.

이재훈. 「유치환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虛無意識)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22, 2007, pp.139~162.

이미경. 「“유치환과 아나키즘”」, 『한국학보』 26, no. 4, 2000, pp.168~191.

94)방인태, 「유치환 시의 인간주의:『청마시초』와『생명의 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1991, pp.341-357.

생명을 노래한 청마 유치환

-초기 시 중심으로 한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 20161093 전은영

'깃발의 시인'이라고도 불리는 청마(靑馬) 유치환은 1931년 문예월간에 시 <정적>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시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생전 12권이나 되는 시집을 남겼는데, 주로 인간존재와 초월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탐구, 이를 사변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시 세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생명파 또는 인생파 시인, 허무와 의지의 시인으로 불려왔으며, 한국 현대 시사에서 남성적인 시 세계를 보여준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기 시 중심의 대표작으로는 존재에 대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한 <깃발>, <생명의 서>, <바위>, <울릉도> 등이 있다. <행복>과 같은 서정적인 시를 썼던 후반기와는 달리, 초반기 유치환의 시는 존재하는 자아에 대한 회의, 생명에 대한 삶의 고뇌를 담아 노래한다. 이는 좌절한 자아와 극한 상황 속에 맞서 대결하려는 자아를 동시에 보여주며 존재론적인 모순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유치환의 초기 시 작품 활동 시기는 1930년대로서 모더니즘이 대두되었다. 당시 문학은 서구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기교 위주의 시 창작이 주를 이룬 형식화된 시기였다. 이와 달리 생명의 근원력이나 삶의 고뇌를 노래한 유치환은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생명 의식을 표출하며 자신의 이념적인 의지를 강한 어조인 남성적인 목소리로 시를 창작했다. 모더니즘이 시에서 양식이나 기교를 중시했다면 그는 시에서 이상과 주제를 중요시하였다. 특히, '남성적인 어조'는 유치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 목소리를 남성형으로 설정하여 허무적인 자아를 표출함과 동시에 의지로써 대결해 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를 두고 우리는 그를 생명의 시인이며 의지의 시인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시 <생명의 서>에서 극한 상황에 처한 화자는 '병든 나무'와 같은 시어로 자연 사물에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여 외로운 존재인 자연을 통해 '나'를 투영하여 인생에 대한 허무를 자각한다. 그러나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초극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삶의 본질을 보여주며 강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현실의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처럼 서정주와 함께 서정시 운동을 전개한 '시문학파'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를 쓰는 인간탐구를 지향한 유치환은 '생명파' 시인으로서 남성적인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를 설정한다. 이는 여성적인 어조로 정한의 서정을 형상화하는 현대 시의 한 주류와는 대척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또한, 허무적인 시상을 시어로 표현하며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적 감성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여 인간의 허무적 의식을 의지로 극복하여 생명의 본질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오세영, 「유치환에 있어서 허무와 의지」, 『한국시학연구』 2, 한국시학회, 1997, pp.224~251.
오세영, 「존재의 초극-유치환의 시 세계-」 『한국현대문학연구』 7, 1999, pp.203~224.

시대와 대결한 작가

-최인훈의 생애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1936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장남으로 출생했다. 풍요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며 어려서부터 책 읽기에 몰두했다. 회령북국민학교에 입학한 뒤 1945년 해방이 되자 1947년 함경남도 원산으로 이주한다. 아직 일제 강점기의 장서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원산시립 도서관에서 소설과 사상서들을 탐독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낸다. 이후 작가의 작품에 원산 체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95]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12월 원산항에서 해군함정 LTS(landing ship tank)를 타고 전 가족이 월남했다. 이 집단적인 인구 이동에 작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목포 고등학교에 입학 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이때부터 소설가로서 최초의 작품 『두만강』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970년 발표했다. 1956년 대학을 중퇴했다. 그 이유는 대학 공부에서 자신의 정신적 욕구를 채우지 못해 갈등을 느꼈기 때문이다. 1957년 군에 입대하며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이때 작가의 주요 초기 작품들이 집필되었다. 1959년 『Grey구락부 전말』을 발표하고 같은 해 『라울전』을 잡지에 실으면서 공시적인 소설가가 되었다.

1960년 『가면고』와 『광장』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의 역량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작가의 말 중 “4.19은 역사의 큰 조명등 같은 생활을 비춰준 계기가 되었고 『광장』은 내 문학적 능력보다는 시대의 서기로서 쓴 것이다.”라고 말했다.[96] 1962년 서포 김만중의 고전소설을 근대적 관점으로 풀어낸 『구운몽』을 발표했다. 1963년 『회색인』을 발표하며 “『회색인』의 독고준은 작가 자신의 분신이자 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독고(獨孤)의 상태에 처한 고독한 자유인으로 한국의 현실과 역사에 깊은 성찰과 번성을 거듭하는 지식인이다.”라고 했다.[97] 1967년 『총독의 소리』를 발표하며 작가의 소설 중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품에 속한다.

1970년대는 희곡 창작에 주력하였다. 1976년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를 발표하였다. 1994년 장편소설 『화두』를 발표하며 “소설 속 ‘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는다.”[98]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이후 여러 작품을 발표한 뒤 2018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별세하셨다. 최인훈 작가의 작품은 시대의 변화를 겪은 만큼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과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이유경, 「최인훈의 이상(李箱) 다시 쓰기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과 『화두』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19, pp.67-119.
신성환, 『최인훈 작가 연보』, 본질과 현상사, 2018.

95) 신성환, 『최인훈 작가 연보』, 본질과 현상사, 2018, p.27.
96) 위의 책, p.29.
97) 위의 책, p.30.
98) 이유경, 「최인훈의 이상(李箱) 다시 쓰기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과 『화두』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19, p.111.

밀실과 광장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던 이상주의자의 이야기

- 최인훈의 <광장> 작품설명

국어국문학과 20191035 김태호

<광장>은 소설과 최인훈이 60년대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광복 후 남북이 분단되어 일어나는 갈등을 주제로 삼은 분단소설이다.

주인공 이명준은 중산층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임이 발각되자 형사들에게 강압적인 취조와 구타를 받아 남한 사회에서 환멸을 느끼고 월북한다. 월북해서도 그는 혁명은 없고 부자유와 왜곡된 이념만 있는 북한 사회에서 다시 한번 실망한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명준은 군관으로 참전하지만, 서울에서 아이를 가진 연인 은혜를 잊고 포로가 된다. 잡혀서 설득 받아도 남북 누구 하나 선택하지 않은 이명준은 정전 이후 제3국을 택했다. 그는 중립국으로 가는 타르고 호를 타고 통역 일을 했다. 하지만 고독했던 이명준은 갑판 위에서 갈매기를 보고 바다야말로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타르고 호에 '미스터 리'라는 한 명의 실종자가 생기고 소설이 끝난다.

이명준은 '밀실'과 '광장'을 찾고 싶어 한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의 공간을 바꾸려 하기보단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려 한 소극적인 사람이다. 여기서 '밀실'은 자신만의 공간이고 '광장'은 사회적 삶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북한에선 자유(밀실)가 결여되고 남한에서는 사회적 소통(광장)이 결여되었음을 깨달아 3국을 선택한다. 하지만 3국도 추상적이고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인지는 불확실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서 은혜와 아이가 있는 갈매기의 환영을 보고 바다야말로 이념이 없는, 사랑과 자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세계라 판단하고 자살을 택한다.

소설 '광장'은 남북의 분단을 단순히 단일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고, 인간이 누려야 할 많은 자유를 억압당하는 문제만 부각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에 간섭받는 상황과 일제강점기의 자취를 없애지 못하는 현실을 담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의 분단으로 인해 밀실, 개인, 자유와 광장, 사회, 평등의 모순과 괴리가 생기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시각에서 분단이 여러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독자가 깨닫게 해주고, 현재 남북분단의 상황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류보선, '분단소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신동욱, 『광장』 최인훈,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이광호,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시선 주체의 문제」, 『상허학보』, 2012, pp.325-355.
이종호, 「최인훈의 『광장』연구」, 『현대소설연구』, 2007, pp.107-125.
최인훈, 『광장』, 문학과지성사, 1960.

1960-1970년대를 살아간 지식인의 삶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작품설명

국어국문학과 20171016 김주리

최인훈이 저술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60년도 후반에 발표된 작품으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패러디 소설이기도 하다. 소설의 첫 시작은 소설가인 구보씨의 일상을 기점으로 전개된다.

구보씨는 월남을 하게 된 소설가로 등장하며 1969년에서 1972년까지의 모습이 소설에서 서술된다. 이 소설은 구보씨의 일상이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고,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큰 갈등이나 위기가 내용에 부각되어 있지 않다. 소설의 첫 번째 <느릅나무가 있는 풍경>을 시작으로 구보씨가 아침에 일어나 대학으로 간 후 강의와 토론을 하고, 음식을 먹고 다방에 가며 이후엔 술을 마시는 등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을 그대로 담곤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에는 크게 갈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갈등의 요소를 하나 꼽자면 구보가 시집이 출판한 기념으로 열린 행사를 참여하여 분위기를 맞추지만, 그 후에 느끼는 여러 감정은 구보를 혼란스럽게 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이렇게 평온한듯하나 그 안에 담긴 구보만의 정서는 작가로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담담하게 전개되는 내용 속에 구보는 삶을 대하는 방법과 작가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생각하는데, 이는 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지닌 지식인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소설노동자 역시 소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소설노동자란 어려운 직업이라 구보는 '이런 길에 들어선 것을 크게 뉘우친'다고 말하고 있다[99]. 그만큼 구보는 소설 쓰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가책을 느낄뿐더러 이는 즉 그가 자신이 소설가로서 행하고자 하는 바가 잘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소설가로서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피난민'의 입장에도 서 있는 구보는 여러모로 평탄하지 않은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구보는 최인훈과 직업, 살아가던 시대, 처한 입장이 거의 비슷하여 최인훈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유추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구보가 대변하는 최인훈의 최대의 불행이자 시대의 험난함은 남북의 분단일 것이다.[100] 전쟁이 맞물려있는 시대인 만큼, 본인에게 물음표를 연속으로 던질뿐더러 현실 자체에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동서 화해나 남북화해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측불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101] 이 모든 상황이 구보에게 혹은 최인훈에게는 그저 불안정한 개인과 사회로 다가왔을 것이다.

작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단순 일상 이야기 같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되돌아보는 작가적 자의식을 느끼는 본인의 모습을 서술해낸 소설이다. 또한, 큰 사건들은 구보의 저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구보는 되풀이되는 무의미한 일상을 겪는 것이 당대 지식인의 관념과 한계라는 점[102]을 통해 소외된 지식인의 모습을 나타낸 작품이기도 하다.

---

99) 구재진, 「최인훈의 고현학, '소설 노동자'의 위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38,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12, p.315.

100) 김성렬, 「현대문학 :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작가의 일상, 의식, 욕망」,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p.565.

101) 구재진, 위의 글, 2012, p.329.

102) 안혜련,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술 특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비평』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p.58.

《참고문헌》

구재진, 「최인훈의 고현학, ‘소설 노동자’의 위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38,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12, pp.305-340.
김성렬, 「현대문학 :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작가의 일상, 의식, 욕망」, 『우리어문연구』38, 우리어문학회, 2010, pp.551-580.
안혜련,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술 특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비평』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 pp.54-76.

문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최인훈의 <광장>,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71039 박정훈

1960년 4.19의 후광을 입고 그해 11월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전쟁 체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1950년대의 문학적 경향에서 벗어나 1960년대를 여는 문학으로서 주목받아왔다.[103] <광장>은 남북의 분단 문제를 다루며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다. 우리 민족은 광복 이후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여러 정치적인 요소들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 남북 분단의 문제를 최인훈이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주인공 이명준에 의해서 행해지는 남한 체제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같은 1950년대에는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사회체제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전 작품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작품으로써 평가되고 있다.[104]

한편 한국에서 4.19의 의미는 '자유', '광장' 등 추상적 이념형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4.19는 중립화 통일론을 다시금 공론장에 등장시켰으며, 최인훈은 '중립국행 포로'에 착안한 상상을 바탕으로 <광장>을 창작하였다. <광장>의 주인공인 이명준이 남북 모두를 거부하고 '중립국'을 선택했듯, <광장>은 1950년대 한국의 반공주의적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성 또한 담고 있다.[105]

최인훈의 문학사적 새로움은 소재나 이념의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진정한 새로움은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 실험을 통해 소설의 현실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갔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형식 실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세이적' 소설 형식이다.[106]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또한 '에세이적' 소설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 구보에게는 작가의 자의식이 담겨 있다. 나이, 고향, 직업을 동일화시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소설을 통해 풀어낸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의미 없는 사건들이 연속되며 연속되는 사건 간의 통일성은 알 수 없는 등의 이전의 소설과는 다른 반 소설적인,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다.

최인훈은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지 않았던 문제를 당면하고 문학사적 새로움을 계속해서 시도했다. 개인과 사회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맞서보려 한 것이다. <광장>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시도했던 그의 문학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문학적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구재진, 「최인훈의 『광장(廣場)』연구」, 『국어국문학』115, 국어국문학회, 1995, pp.211-236.
장문석, 「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 - 7·4남북공동성명 직전의 최인훈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통일과 평화』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254-316.
최인자, 「최인훈 에세이적 소설 형식의 문화철학적 고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pp.153-178.

103) 구재진, 「최인훈의 『광장(廣場)』연구」, 『국어국문학』115, 국어국문학회, 1995, p.212.
104) 위의 논문, p.215.
105) 장문석, 「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 - 7·4남북공동성명 직전의 최인훈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통일과 평화』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256.
106) 최인자, 「최인훈 에세이적 소설 형식의 문화철학적 고찰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p.156.

중립국 선택까지 수용소 상황

-최인훈 관련 유적지

인문학부 20201067 유현승

<광장>의 이명준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자유가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광장'을 갈망한다. 하지만 기만적인 남한의 모습과 개인적 자유가 말살된 북한의 현실에서 '광장'을 찾지 못하고 허무와 절망을 느낀다. 이명준의 허무의식은 '극도의 환멸'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마지막 탈출구라 여겼던 사랑하는 여인(은혜)마저 운명을 달리하며 자신을 떠나갔기 때문이다.[107] 낙동강 전선에서 이명준은 포로로 잡힌다. 그가 포로 생활을 한 곳이 바로 '거제 수용소'이다.

1951년, 거제 포로수용소는 한국전쟁에 의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최대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수용하였으며, 그중에는 300여 명의 여자 포로도 있었다. 지금은 잔존건물에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의복 등 생생한 자료와 기록물들을 전시하여 유적공원으로 남아있다.[108]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1983년 12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9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중이다.[109]

출처:거제 포로수용소 홈페이지 (거제 포로수용소 천막 막사/ 포로수송 재현 전시물)

수용소 설치

6.25 전쟁 중 발생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유엔군은 대전과 대구 그리고 부산에 수용소를 설치하였으나 전쟁 첫해 발생한 포로 규모만 13,500여 명을 넘기게 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략 15,000명 정도 포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 유엔군 사령부는 대규모 포로를 수용할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했다. 제주도는 이미 난민으로 초만원이 되어있었고 용수도 부족했기 때문에 수용소 부지로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며 양호한 급수 상태 그리고 식량 자급 가능 요건을 갖춘 거제도가 수용소 부지로 선정되게 된다.[110]

---

107) 김성수, 「최인훈의『광장』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p.27.
108) 거제포로수용소 홈페이지, http://www.pow.or.kr/_main/main.html, 2020.04.13.
109) 거제포로수용소 홈페이지, http://www.pow.or.kr/_main/main.html, 2020.04.13.
110) 유숙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의 체험과 송환선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p.8-9.

포로 송환심사에 따른 친공과 반공의 갈등

초기 수용소는 포로 분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혼합수용이 된 상태였다.[111][112]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공과 반공 세력이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서로 간의 대립이 발생하면서 충돌도 가시화되었다. 수용소의 각 구역이 친공 또는 반공으로 구분되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방법은 점차 악랄해졌다.[113] 한편, 수용소 밖에서는 양국이 휴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자 양측이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휴전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유엔군과 공산군은 전투에서 얻지 못한 승리를 심리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고, 협상은 2년 이상 지속되었다.[114][115]

유엔군과 공산군이 포로 송환원칙을 놓고 맞서고 있다는 사실은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포로들에게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했다. 심화된 불안감에 포로들 간의 투쟁이 잦아지고 그 규모도 점차 커졌다. 반공 포로들은 만약 자신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반동분자(반동적인 행위를 한 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했다.[116][117] 반대로, 공산 포로들은 송환 문제의 논의 자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18] 그들이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포로가 된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한 행동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모색한 것은 포로수용소에서 '배신자 처단' 등으로 표출되었다.[119]

출처: 거제 포로수용소 홈페이지 (송환을 거부한 반공포로[120]/인민재판을 한 후 즉석에서 타살된 반공포로들)

송환심사에서 포로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포로조직에서 송환심사 전에 행한 모의심사와 인민재판으로 조직의 영향력 내에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121] 그중 중립국을 선택한 이들도 송환 의사를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보복을

111) 유숙현, 앞의 논문, p.21.
112) 전쟁 초기 전쟁이 일찍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며 포로의 억류 기간이 길어진다. 이념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혼합수용을 뒤늦게 나누어 수용하지만, 자신의 계급이나 관직을 속이고 입소한 포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분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113) 거제 포로수용소 홈페이지,http://www.pow.or.kr/_sub06/sub06_01d.html, 2020.04.13.
114)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11, pp.6-8.
115) 공산군 측은 1949년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자동송환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엔 측은 다양한 출신의 포로들을 강제로 공산 측에 송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산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116) 유숙현, 위의 논문, pp.43-45.
117) 이들은 송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더욱 가열찬 반공투쟁을 벌였다. 한국정부에게 확실한 충성심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문신과 혈서 등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증명했다.
118) 공산 포로들은 포로로 붙잡힌 것을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죽지 않은 것으로 여겨 불명예로 생각했다.
119) 유숙현, 위의 논문, p.46.
120) 가슴에 태극기를, 양 팔뚝에 '멸공','애국'이라는 글씨를 새긴 반공포. 각주 11)의 문신을 한 반공포의 예.
121) 유숙현, 위의 논문, p.52.

당했고, '조국을 저버리는 배신자'라고 불렸으며, 중립국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면 많은 포로들의 비난거리가 되었다.[122] 중립국행을 원한 총 88명의 포로는 인도로 이송되었고, 그들은 최종 정착국이 정해질 때까지 그들을 수용해 줄 '중립국'을 상실했다. 중립국을 자원 선택한 포로는 결국 국제적 난민 처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엔의 처리를 받게 되었다.[123]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중략》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립국.[124]

<광장>의 이명준은 중립국 행을 택한다. 전쟁터와 같은 수용소 생활을 견딘 이명준은 수용 기간에 더욱 환멸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엔군과 공산군 중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에서 포로 송환문제를 통해 전쟁의 승패, 이념의 승패를 결론지으려고 하는 모습과 수용소 안에서도 끊이질 않던 이념 대립은 이명준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성수, 「최인훈의 『광장』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유숙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의 체험과 송환선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최인훈,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996.
거제포로수용소 홈페이지, http://www.pow.or.kr/_main/main.html, 2020.04.13.

122) 이선우, 위의 논문, pp.25-28.
123) 이선우, 위의 논문, p.60.
124) 최인훈,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996, p.56.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수로왕비릉과 구지봉

20191073 국어국문학과 이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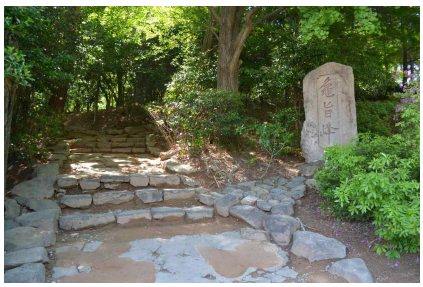
▲ 수로왕비릉

사적 제74호인 수로왕비릉은 삼국시대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왕비 능이며 허왕후릉이라고도 한다. 왕비의 성은 허, 이름은 황옥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래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이다.

수로왕릉과 달리 구릉[125]에 위치한 수로왕비릉은 지름 약 16m, 높이 약 5m의 둥근봉토분[126]이다. 능 주위에는 얕은 돌담을, 전면에는 장대석을, 중앙에는 혼유석을 놓았다. 능 앞엔 '駕洛國首露王妃 普州太后許氏之陵(가락국수로왕비 보주태후허씨지릉)'가 새겨진 능비가 있다.

▲ 파사석탑

파사석탑은 『삼국유사』에서 수로왕비가 서역 아유타국에서 가야에 오기위해 머나먼 바다를 건너가려 했지만 파신의 노여움에 막혀 다시 돌아왔는데 부왕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 싣고 가라 하여 함께 싣고 왔다고 전해지는 네모진 탑이다. 조각이 기이하고 석재 자체에 희미한 붉은 무늬가 있다. 현재는 6개의 석재만 남아 있으며 실물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 석질이 매우 부드럽고 특이하여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이 아니라고 한다.[127]



▲ 구지봉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은 수로왕 탄생설화와 「구지가」에서 등장한다. 구릉 모양이 거북이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구수봉, 구봉 등으로 불린다.

넓은 원형 모양 봉우리는 마치 엎드린 거북이를 연상케 한다. 수로왕비릉이 있는 산봉우리 동쪽이 거북이 몸통, 서편으로 쭉 고개를 내민 지금의 구지봉이 거북이 머리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거북이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뚫어 도로를 만든 탓에 원래 거북 모양이 훼손되었다고한다.

---

125)언덕

126)수로왕비릉이 김해 구산동 고분군(사적 제75호)과 인접하여 무덤 내부 구조가 널무덤 또는 돌방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임진왜란 때 도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진다.

127)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피사석탑',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파사석탑&ridx=0&tot=647.

《참고문헌》

「김해 관광포털」,
http://www.gimhae.go.kr/00204/00049/02596.web?amode=view&idx=265
「김해 시청포털」, http://www.gimhae.go.kr/00954/01019/01055.web
남태우, 「뚜벅뚜벅, 전설과 역사 속으로…김해 가야 역사 한 바퀴」 부산일보 , 2020.01.1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1518074365691, 2020.04.17.
일연,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13.
최정현, 「'철의 바다'로 불린 고장…금관가야 숨결을 더듬다」, 국제신문 , 2018.11.28.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600&key=20181129.22015011682, 2020.04.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파사석탑' 2020.04.17 ,https://encykorea.aks.ac.kr/

《사진자료》

김해 관광포털

우리 시가의 첫걸음, 고대가요

-고대가요란 무엇인가

국어국문학과 20177004 최동희

한국의 시가는 기원전 한역(漢譯)으로 전하는 노래로부터 시작된다. 고대 부족국가시대로부터 삼국 초기까지는 향가(鄕歌)가 등장하기 전 시기이다. 이때는 아직 우리 문자를 가지지 못하였기에 부득이하게 한역될 수밖에 없었다. 전해진 노래들은 사의(辭意)가 남아 있는 최초의 작품이며, 4행의 형식은 그 뒤 우리나라 시가의 기본형식을 이룬다. 또한, 이들 노래는 설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128]

신라 향가 이전까지 만들어진 우리시가의 일체를 가리켜 '고대가요' 라 한다. 이는 상고시가(上古時歌), 고대시가, 상대가요, 고시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작품이 남아 있는 경우는 주로 4언 4구 시경 형식으로, 그 외의 작품들은 역사서 등에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목만이 전해진다. 그렇기에 이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면이 드러나는지 살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 정서와 삶, 공동체 및 국가의 문제, 종교적인 염원 등 시가가 보여줄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129] 김성언(1992) 에서는 '상고시가들은 창작된 연대가 역사서술의 초기단계라는 점과 상식적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 혹은 심지어 가사가 전해지지 않고 다만 부대설화만 전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숱한 논쟁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음'[130]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작품들에는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하가」, 「도솔가」 등이 있다. 「황조가」는『삼국사기』권 13에 전하는 노래로, 고구려의 제 2대 왕인 유리왕이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지가」는『삼국유사』권 2에 전하며, 김수로왕을 비롯한 가야 6개국(김해-금관가야, 고령-대가야, 함안-아라가야, 고성-소가야, 성주-성산가야, 진주-고령가야)의 건국신화와 연관이 있는 노래이다.「공무도하가」는『해동역사』권47 예문지6 본국시1에 옮겨 전하는 노래로,「공후인」이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물에 빠져 죽은 남편에게 공후라는 악기를 타며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배경 설화이다.「도솔가」는『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편에 전하며, 신라 유리왕의 덕에 민속이 즐겁고 편안하여 짓게 된 가악(歌樂)의 시초라 알려져 있다.[131]

《참고문헌》

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도서출판 다운샘, 2018.

김성언, 「해동락부(海東樂府)에 나타난 상고시가(上古詩歌)의 양상」, 석당논총 18권0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2, p1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가'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9C%EA%B0%80&ridx=2&tot=369, 2020.04.12.

1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가',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9C%EA%B0%80&ridx=2&tot=369.2020.04.12.

129) 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도서출판 다운샘, 2018, p.11.

130) 김성언, 「해동락부(海東樂府)에 나타난 상고시가(上古詩歌)의 양상」, 석당논총 1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2, p.105.

131) 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도서출판 다운샘, 2018, pp.12~16.

여러 관점에서 구지가 바라보기

-구지가의 배경설화 및 시어분석

인문학부 20191059 신영재

<구지가>는 고대가요 중에서도 잘 알려진 작품이다. 영신군가(迎神君歌)·구하가(龜何歌) 또는 구지봉영신가(龜旨峰迎神歌)라고도 부른다. 원가(原歌)는 전하지 않으나, 관련설화와 4구체의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삼국유사』권2 가락국기조에 전한다.[132] 본문은 다음과 같다.

龜何龜何 (귀하귀하)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수기현야) 머리를 내밀어라
若不現也 (약불현야) 내어 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번작이끽야) 구워 먹겠다.[133]
-정덕본 『삼국유사』권2 가락국기

서기 42년,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구간(九干) 등의 사람들이 모이자, 봉우리의 흙을 파 모으고 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추면 대왕을 맞으리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하니 하늘에서 자색 줄에 매인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금합 안에는 황금빛 알 여섯 개가 있었고, 아도간의 집에서 하루 후에 모두 동자로 변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는 김수로왕을 비롯한 가야 6개국의 탄생설화이자, 건국신화이다.[134]

구지가는 건국 서사시로 집단 무가와 의식요의 성격을 보여주며, 주술적 표현과 명령조의 어법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 이 시에 사용되는 거북은 주술의 대상으로 신령스러운 존재를 나타내는 시어로 사용되고 있다. 거북의 머리는 생명의 근원과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시어로 표현된다. 또한 '머리를 내밀어라'라는 표현은 주술의 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수로라고 지칭된다. 그리고 '구워 먹겠다.'라는 구절은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35]

'주술요'인 구지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거북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장수의 동물로 보는 관점에서 잡귀를 쫓는 주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거북의 머리를 생명의 상징이자 남성의 성기로 보는 관점에서 원시인의 성적 욕망을 표현한 노래로 볼 수도 있다.[136]

《참고문헌》

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도서출판 다운샘, 2018.
성기옥,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2)」, 『배달말』 12, 배달말학회, 1987, pp.128~1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지가'.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5%AC%EC%A7%80%EA%B0%80&ridx=0&tot=25, 2020. 04. 12.

132)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지가',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5%AC%EC%A7%80%EA%B0%80&ridx=0&tot=25. 2020.04.12.
133)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도서출판 다운샘, 2018, p.14.
134)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도서출판 다운샘, 2018, pp.14~15.
135)성기옥,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 (2)」,배달말 12권 0호, 배달말학회, 1987, pp.128~130.
136) 위 논문, pp.128~130.

구지가의 다양한 해석

-구지가의 문학적 의의

인문학부 20201068 윤서현

「구지가」의 성격은 영신제(迎神祭)의 절차 중 가장 중추가 되는 희생의식의 무용에서 불린 주가(呪歌)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구지가」의 성격을 잡귀를 쫓는 주문이나 원시종교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원시적 기도로서의 주 원사로 보기도 하였다. 현재 전하고 있는 「구지가」는 어사(語辭)의 의미 전이과정을 거쳐 제사에서 부르는 의식가(儀式歌)가 되었고, 다시 주력(呪力)을 불러일으키는 주가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던 가요라는 것이다. 또한, 가락국 선주민들의 토착적 제의에서 쓰이던 일종의 풍요 주술 형태이던 「구지가」를 시조신으로서의 수로왕을 맞기 위한 영신 제의에서 영신 주술의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라 보는 견해 등도 있다.[137)]

「구지가」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주가와 농경의례의 노동요로 보이는 것이다. 주가의 경우는 제의에서 불린 것과 은유 주술의 한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노래가 순수한 내용의 전달 의지보다는 풍요 생산을 기원하는 주술성이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의 구조가 구지가나 해 가의 형태와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구지가가 갖고 있던 주술성의 미전사가 고려 시대에도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구지가」의 전승은 의미의 전승이 아닌 주술성이 띤 노래의 전승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발생이 된 삶의 불행을 해소하는 주술적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신앙의 주술적 요소로서 그 강력한 전과와 확고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지가」가 발생했던 당시의 노래가 지닌 목적은 상실되고, 주술성을 바탕으로 다른 의미부여가 이루어진 형태로 전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노동요의 경우는 김해지방이 활발한 철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등 교역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상황을 토대로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특징적 민요를 도입함으로써 당대의 생활상과 지역적 특성을 묘사해 보고자 했던 작업의 결과로, 이것은 철의 생산과 관련한 노동요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철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었고, 권력의 상징으로써 인정되고 있었다. 즉, 「구지가」가 순수한 내용의 전달 의지보다는 생산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성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지가」는 보다 많은 철을 캐내기를 기원하면서 부른 노동요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138)]

《참고문헌》

김종대, 『한국 민속문화 연구총서』5,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997, pp.142~15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지가’,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구지가&ridx=0&tot=25, 2020. 04.12.

137)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구지가&ridx=0&tot=25, 2020.04.12.

138) 김종대, 한국 민속문화 연구총서 5,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구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7, pp.142~152.

메모